

새벽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듯 어찌할 바 없는 어둠에 싸여있을 때 하나님의 광명이 더욱 빛을 발하듯 고난 중에서 소망의 빛을 발하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 미주크리스천신문

## The Korean Christian Press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0년 5월 16일 (토) 제 1777호

□ L. 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 두려움 바이러스, 소망 바이러스로 이긴다!

#### CT, 코로나19 확산 초기단계에서 배운 싱가포르 교회의 7가지 교훈 소개

소독제, 통조림, 화장지, 먹는 물이 사라진 상점, 부족한 마스크를 사려고 서로 싸우는 사람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교회를 겨냥한, "사회적 책임"이 부족하다는 비난과 분노... 코로나19가 아시아에서 유럽과 북아메리카로,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슈퍼마켓과 주식시장, 지역 교회를 가리지 않고 모든 곳에서 유례없는 공포와 불안이 치솟고 있다.

빌리 그레이엄이 "아시아의 안디옥"이라 부른 싱가포르의 교회들은 이제 팬데믹 단계에 들어선 이것을 먼저 겪었다. 지난 2월 7일 싱가포르 정부는 질병발생대응상황(DORSCON) 경보를 '옐로우'(주의)등급에서 '오렌지'(경계)등급으로 올렸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대중 모임이 "중간수준"으로 중단된다는 뜻이었다.

싱가포르에서 3월 7일은 오렌지등급 한 달 째를 맞은 날이었다. 이 한 달이 싱가포르 교회들-인구 5명 중 1명이 크리스천-에게는 자의

반타의반 자기점검과 성찰, 그리고 행동의 시간이 됐다. 순탄치 않은 기간이었다. 한 지역교회의 담임목사가 감염된 것이 확인됐고(나중에 완치판정을 받았다), 모든 교단이 회중예배를 중단해야 했고, 교회시설 유지원도 모두 폐쇄해야 했다. 그리고 종교적인 조화를 엄격히 요구하는 이 나라에서 교회 지도자들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한 온라인 비판이 들끓었다.

중국, 한국, 싱가포르에서 교회들이 지난 몇 주 동안 고심했던 것을 이제는 미국과 이탈리아, 브라질 등 다른 나라의 교회들이 겪고 있다. 크리스천니티투데이(CT)는 지난 코로나 19 확산 초기단계에서 싱가포르 교회가 얻은 7가지 교훈을 보도했다(7 Lessons from Singapore's Churches for When the Coronavirus Reaches Yours: Advice from Christians in the "Antioch of Asia" on how your congregation can survive-and thrive-amid the COVID-19 outbrea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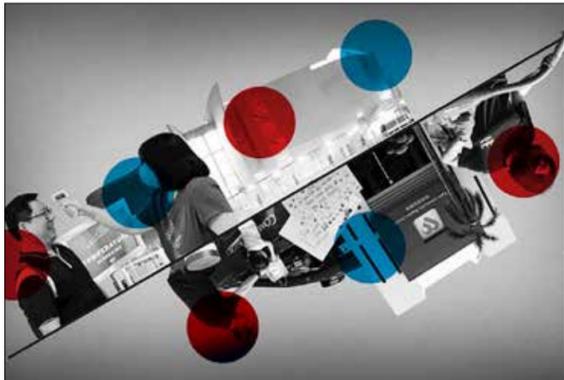
1. 예배가 달라질 것이다. 예배의 본질은 고수하되, 나머지는 유연하게 대처하라.

교회는 습관의 피조물이다. 교회는 전통과 예전, 예배 절차 위에 서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에 근본이 되는 것과 제도적 반응에 불과한 것 사이의 경계는 희미해진다.

성찬은 반드시 진짜 와인과 누룩을 넣지 않은 빵으로 해야 하는가? 직접 손을 대지 않은 치유기도도 유효한가? 반드시 실제로 모여야 교회라 할 수 있는가?

자주 토론하는 주제는 아니지만, 모든 교회는 (그리고 교인은)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한 저마다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 코로나19가 이러한 교리적 질문을 다시 꺼내게 만들었다. 어떤 결정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타협이 아닐지, 싱가포르 교회들은 지난 한 달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공포와 지혜 사이에서 길을 찾아가는 경험이 가장 큰 교훈"이었다고 더스티교회와 안드레탄 목사는 말했다. "바른 길을



찾아가기가 어려운 것은 공포가 지혜로 위장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판단에 기초한 예방조치들도 많지만 비이성적인 공포와 불안 때문에 취한 조치들도 많습니다."

탄 목사는 "우리는 교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공포와 불안, 자기보호의 문화적 풍토에 굴복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또 교인들에게 안전조치들만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힘든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도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에 대한 교회의 구체적인 대응은 그 교회의 교리, 지역사회의 환경, 감염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정답은 없다. 모든 교회가 이 비상사태에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응일지 모색하고 있다.

2.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교인들은 강한 지도자의 방향 제시를 원한다.

"위기가 있을 때, 사람들은 리더십을 기대합니다." 3:16교회

의 이안 토 목사는 말했다. "지도자의 첫 번째 책임은 짐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패닉은 터널사-상황을 폭넓게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시야가 좁아지는 상태를 유발하고, 그러면 끔찍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강한 리더십은 교인들에게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신다. 그러니 당황할 이유가 없다."

토 목사는 그의 리더십 팀이 발견한 역할은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돌보고, 격려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 교회 성도들은 무릎을 꿇고,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했던 이 상황을 이겨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됐다. 토 목사는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교회 지도자로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제가 모르는 것도, 배워야 할 것도 너무 많습니다. 덕분에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날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3면으로 계속)



남가주한인연합기도회에서 한기홍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제69회 국가 기도의 날 한인교계 동참

지난 7일 제 69회 국가 기도의 날을 맞아 미주 전 지역에서 기도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남가주 한인교계와 뉴욕교협, 뉴저지교협도 합류해 기도회를 개최했다. 하박국 2장 14절을 주제로 정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순서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예배로 진행됐다.

#### 남가주

2020 국가기도의 날 남가주 한인연합기도회는 미주성서화 운동본부(공동회장 송정명, 진유철 목사) 주최로 오전 10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렸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순서 담당자들과 방송 관계자, 기자 등 50여명만 참석했다. 미주복음방송과 유튜브 채널들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1천여 명이 동시에 시청했다. 시청자들은 생중계 채팅창을 통해 기도가 끝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메시지를 동시에 올리거나 기도

내용에 따라 자신의 고백을 올리는 등 기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한기홍 목사는 '재앙이 그쳤더라'(삼하24:25)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전쟁과 기근,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신다"며 "코로나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막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모든 일상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10면으로 계속)



발행인 칼럼 김성국 목사



푸른초장 정준성 목사



코로나 팬데믹,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희갑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213) 289-9009 | 650 Shatto Pl., Los Angeles

성경암, 성경대, 그리고 자녀들의 상한 마음치유를 돕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한부모 가정 모임**  
LA 비전교회 협력사역  
520 S. Lafayette Park Pl #200  
213-386-9191, 949-627-1452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jbcbook.org / cjb2191@gmail.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경공부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리더십 석.박사 MBA, DL, Ph.D.**  
리더를 위한 전문 학위과정  
34년 전통, 70여개국 동문들의 세계적인 네트워크

한국어, 영어, 특강, 온라인  
미국유학 가능 (SEVIS I-20, J-1 Visa)

**Graduate School of Leadership 리더십 대학원**  
M.B.A.  
Doctor of Leadership  
Ph.D. in Leadership

Major  
Brain / Gifted Educational Leadership 두뇌개발, 영재교육  
Management Innovation Strategy Leadership 혁신경영 전략  
International Culture & Arts Leadership 국제문화예술  
Organizational / Ministry / Mission Leadership 조직, 목회, 선교  
Real Estate Management Leadership 부동산 경영  
Defense Fusion Leadership 국방융합  
Entrepreneurial Leadership 경영  
International Aviation Leadership 국제항공  
Public / Political Leadership 공공, 정치  
Sports Management Leadership 스포츠 경영

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www.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Campus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c@midwest.edu

발행인 칼럼

다시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아~~아~~ 역부족입니다.” 실망이 가득한 소리였다. 중계 방송하던 아나운서에게서 왜 그런 표현이 안 나오겠는가. 2회전만 해도 네 번이나 다운되었던 것이다. 언제 또 쓰러질 것인가가 관건이었던 3회전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고국에 계신 동료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2회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그도 그럴 것이 2회전에서 네 번이나

쓰러졌던 대한민국의 홍수환 선수가 파나마의 카라스키아 선수에게 통쾌한 역적 KO승을 거두고 세계 챔피언이 된 것이다. 1977년 11월 27일 파나마시티에서 있었던 일이었다. 43년 전의 일이 아직까지 선명하게 남아 있다. 내게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4전(顛)5기(起)의 신화(神話)”라는 이름으로 기억하는 한국 스포츠사(史)의 대사건이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또 다시 일어나면 된다는 용기를 실제로 보여주었고 각인시켜준 심어준 명승부 권투경기였다.

집의 창문을 통해 보니 나무들이 더 푸르러 간다. 외롭게 홀로 떨던 겨울을 지나고 봄을 거쳐 여름으로 성큼 걸어가면서 나무는 다시 푸르러 가는 것일 게다. 우리가 땅에 떨어지면 산산이 깨어지지만 공이 땅에 떨어지면 다시 튀어 오른다. 지난 주간에 필자가 속한 교단의 총회가 있었다. 총회준비위원회에서 올해는 멕시코의 칸쿤(Cancun)에서 하겠다면서 작년부터 홍보도 하였고 등록도 받고 준비를 많이 하였다. 대부분 총대들이 비행기 표를 미리 예약한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상황은 칸쿤은커녕 집 밖에도 못나가고 있는 것이다. 총회준비위원회는 칸쿤 총회를 포기하면서 올해의 총회까지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 총회준비를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다. 힘든 시작이었고 과정이었지만 마침내 총회를 잘 마치게 되었다.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영화가 있었다. 제목이 시사(示唆)하는 바가 크다. 남진 씨가 부른 같은 제목의 절절한 노래도 있다. 컴퓨터에도 “reset” 기능이 있다.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뭔가 이상하고 기능이 마비된다면 다 끄고 포기할 일이 아니다. 가만히 있는 다고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는다. 주저 없이 리셋 버튼을 누르면 된다. 리셋은 다시 시작하는 기능이다. “다시”라는 것이 없었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 단판(單板) 승부가 인생이라면 누가 지금까지 살아 있을 수 있겠는가. “다시”라는 단어는 희망의 단어이다. 세상도 “다시”라는 단어를 붙잡고 일어선 데 그리스도인들이 “다시”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다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신다. 죄를 지었던 다윗도 “다시” 용서하셨다. 도망갔던 요나도 “다시” 찾아 내셨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다시” 불러주셨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다.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5월 중순인데도 보이는 것이 없다. 현실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다. 그렇다고 주저 않아 있음이 나의 삶이 되어서 안 된다. “다시” 펼쳐질 미래를 희망하며 오늘 “다시” 일어나자. 그리고 보니 “다시”는 “희망”의 친구이다. “다시”의 사람은 “희망”의 사람이다. “다시”의 사람은 홍수환 선수처럼 멧집이 좋은 사람이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다시”의 사람을 이길 세상은 없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신 선물 “다시”를 다시 생각하자. 다시 활용하자. “다시”를 버리지 않은 한 내겐 찬란한 희망이 있다.

생태계 파괴하는 한 바이러스 감염은 계속 된다

BBC,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 저자 콰먼 인터뷰 통해 향후 전망/예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세계 유명 도시의 거리는 텅 비었고 상점은 문을 닫았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됐다.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은 대부분 야생동물에서 유래한다. 전문가들은 인간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 한, 이 같은 전염병은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국의 저명한 과학자 콰먼 데이비드 콰먼(David Quammen)은 그의 2012년 저서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Spillover: Animal Infections And The Next Human Pandemic)’에서 이 같은 전염병의 대유행을 일찍이 경고했다.

과학자들의 분석을 토대로 머지않아 야생동물에서 비롯된 바이러스 감염병이 창궐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BC가 데이비드 콰먼 작가와 직접 이야기를 나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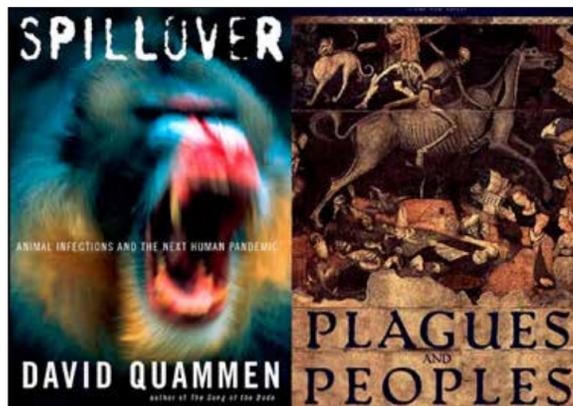
Q. 현재 일어나고 있는 팬데믹 상황에 대해 오히려 놀랍지 않다고 밝혔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10년 전 이 책을 쓰기 위해 조사할 때 많은 과학자들이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태학이나 인수공통감염병 등을 연구하는 여러 과학자들은 앞으로 분명 인수공통감염병의 대유행이 올 것이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과학자들은 새로 등장할 바이러스는 야생동물에서 비롯될 것이며 아마도 박쥐일 수 있다고 이미 경고했다. 또 신종 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나 코로나바이러스처럼 상당히 빠르게 진화하는 것일 거란 예측도 내놨다. 특히, 과학자들은 이같은 바이러스가 중국의 재래시장(wet market)에서 유행할 것이

모든 야생동물들은 자기만의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 특정 종에만 반응하는 바이러스도 있고 특정 집단에 반응하는 경우도 있다. 야생에는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존재한다. 야생동물을 숙주로 삼아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야생동물과 접촉

하기 때문이다.

사실 동물에서 사람으로 바이러스가 옮겨 가는 이른바 인수공통감염병의 출현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이 같은 전염병이 더 광범위하게, 더 자주 일어나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현재 지구상에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



야생동물 접촉, 도시 밀집 현상은 확산률 높여 과학, 기술, 공공보건, 정치적 의지로 해결 가능

라고 말했다.

때문에 내가 놀랐던 건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라 어떻게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토록 준비가 돼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었다. 내 책이 나온 건 이미 10년 전의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은 아니었다.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미국과 이탈리아 등 지구상의 대부분 국가들은 준비돼 있지 않았다.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이 같은 상황이 놀라웠겠지만 과학자들은 분명 이 같은 상황을 일찍이 경고했다. 과학자들의 조언과 정치 지도자의 정보 사이에 간극이 있었던 셈이다.

Q. 이 같은 바이러스는 왜, 어떻게 야생동물에서 인간으로 넘어오는가.

촉을 하게 되면 바이러스는 인간이라는 새로운 숙주로 옮겨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중요한 건 바이러스가 이런 기회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동물에게 다가가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인간이 동물을 포획하거나 죽이고 잡아먹으면서 밀접 접촉이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인간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일단 사람에게 들어온 바이러스는 인간의 몸에서 복제를 시작한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다. 그렇게 자리를 잡은 바이러스는 새로운 숙주를 찾았다는 사실에 기뻐할 것이다. 적응력이 높은 바이러스들이 특히 위험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새로운 숙주에 더 잘 적응할 가능성이

기 때문이다.

인간은 야생 생태계를 계속해서 훼손하고 있고 이로 인해 야생동물과 접촉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긴밀히 연결돼 있고 도시 인구는 밀집돼 있으므로 바이러스는 한번 시작되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Q. 예전보다 의료대응체계가 발전했을 텐데 이러한 위기

를 예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은 과거 악성 전염병을 통제해왔다. 14세기 발생한 톱프질 페스트로 유럽 인구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는 박테리아성 질병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항생제가 있어 페스트 같은 전염병에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또 다른 문제다. 바이러스는 항생제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종류의 약이 필요한데, 이런 약은 개발이 훨씬 까다롭다는 게 문제다. 항바이러스제는 일반적으로 특정 바이러스에만 반응하기 때문이다.

물론 백신을 개발할 수는 있지만 백신 개발과 생산에는 1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코로나19의 경우 확산 규모를 고려할 때 백신 개발에 2년이 걸릴 수도 있다.

우리는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바이러스성 질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는 박테리아성 질병의 팬데믹은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바이러스는 박테리아보다 더 통제하기 힘들다. 사실 말라리아를 제외한 과거 다른 병원체들은 원생동물 기생충에서 기인했다. 이 역시 여전히 매년 50만 명의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지만 사람 간 전염되는 건 아니다.

Q. 앞으로 이 같은 인수공통

감염병이 더 자주 출현할 것으로 보나.

야생 생태계를 파괴하며 접촉이 늘어나는 한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은 더욱 자주 일어날 것이다. 야생에는 사람에게까지 퍼질 수 있는 무수히 많은 바이러스가 있다. 일정 수의 사람들 혹은 수 백명의 사람들이 특정 지역에서 이 같은 질병에 걸리게 되는 일은 또 발생할 것이다.

(4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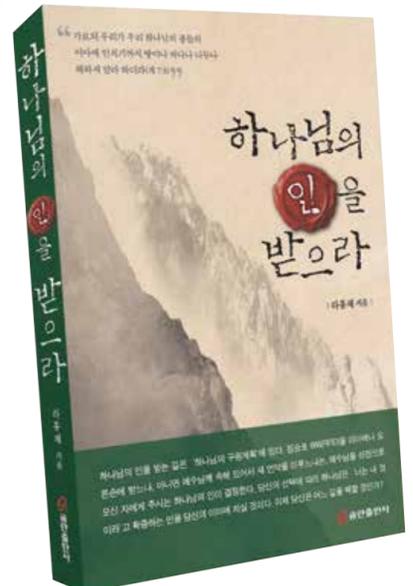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편집국장: 유원정.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성경도표
•다니엘, 계시록(상,하)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다니엘계시록 DVD
•70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영어책)구약, 신약, 700이레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공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 두려움 바이러스, 사랑 전염병으로 이긴다!

(1면에서 계속)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이때, 교회 지도자들은 양들이 목자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전염병의 대유행이 끝났을 때, 어떤 목자가 충성된 종이었는지 여실히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 차이는 매우 클 것이다.

“어떤 연료 있는 지도자 한 분이 제게 ‘지도자의 행동은 신학적 표현’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YCK제플의 릭 토 목사는 말했다. “지도자로서 우리가 취하는 모든 것에는 신학적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건강한 믿음과 신학에서 나와야 합니다. 질병이 아니라, 또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말씀의 가르침이 우리의 결정을 이끌어야 합니다.”

#### 3. 교회에 주어진 테크놀로지 실험의 최적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위기 대응 등급을 ‘레드’로 올릴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교회들은 모든 활동이 중지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비디오 녹화 및 라이브스트리밍 기능의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러한 필요성을 직시한 여러 단체들이 웹사이트와 웨비나를 라이브스트리밍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교회에 무료로 전수하고 있다.

싱가포르 성서 공회는 ThunderQuote라는 스타트업과 제휴해 Streams of Life를 오픈했다. 다양한 난이도의 라이브스트리밍을 선택해 청취할 수 있는 전국 교회 라이브스트리밍 자료센터(National Church Live Streaming Resource Centre)다. “교회가 실제적인 지혜를 발휘하고 창조적인 사역방법을 탐구할 때”라고 소개하고 있다.

싱가포르 성경대학은 “인스턴트 메시지 방송 및 라이브 비디오 스트리밍 교육” 위

크숍을 열었고, 디지털 연구사역단체 Indigitous는 교회 IT 전문가들과 협력해 Zoom 비디오 컨퍼런스 플랫폼을 통한 “라이브스트리밍 예배” 웨비나를 열었다.

예배/영상 팀들도 라이브스트리밍에 따르는 음악 라이선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지역교회들이 저작권이나 라이선스 문제를 염려하지 않고 라이브스트리밍에 음악을 올릴 수 있는 명시적인 허락을 받고 있다.

캘빈과 엘라리스 홍이 설립한 Awaken Generation은 라이브스트리밍 라이선스를 감당할 수 없는 작은 교회들이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가 라이브스트리밍 사용료를 받을 권리를 행사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배 음악그룹은 “우리가 교회에 음악을 제공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라고 말했다. “그 음악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온 나라가 공포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힘을 모으는 이때, 사람들이 우리 음악을 사용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싱가포르 BSF의 7,500명 회원들은 줌(Zoom)을 통해 매주 성경공부 강의와 토론을 계속하고 있다.

조대형교회 Faith Community Baptist Church(FCBC)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2월 중순부터 집회들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다니엘 쿠앙 담임목사는 “매우 힘든 결정이었다”며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두려움 때문인 것 아닌지 계속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여러 사안을 고려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4만6,000명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인구밀집 지역임을 감안하면, 우리 교회가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클러스터가 될 위험성

이 매우 높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하나 있다고 쿠앙 목사는 말했다. 라이브스트리밍 예배가 교회공동체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셀 그룹들 중 많은 수가 라이브스트리밍 예배를 위해 집에 모입니다. 우리는 셀 그룹들이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일부러 라이브스트리밍 예배를 일찍 끝내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지역사회의 영적 복지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얘기했습니다.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한 교인들도 많습니다.”

쿠앙 목사는 “지금 FCBC 교인들은 교회를 새롭게 이해하는 여정에 들어섰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장소’나 ‘프로그램’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사람들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 4. 교회에 주어진 기도 실험의 최적이다.

발렌타인데이부터 매일 정오에 싱가포르 도심에 있는 세인트 앤드류 대성당의 유서 깊은 종이 울린다. 동시 성전역에 전화 경보가 울린다. 그 대성당의 종소리는 신자들에게는 하던 일을 멈추고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자는 신호가 된다.

기도와 교회연합운동단체 러브싱가포르(LoveSingapore)는 PraySingapore@12운동을 시작하면서, “이와 같은 때는 단절이 열쇠”라고 말했다. “우리는 합심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는 이들이 함께 일어나 싱가포르를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싱가포르하나님의성회 산하의 모든 교회들은 ‘코로나19’를 상기하면서 매일 19시(오후7시)에 합심기도 하는 운동을 시작했다.

도미니크 여 싱가포르하나님의성회 총감독 겸 세계하나님의성회협의회 사무총장은 “교회는 주님 안에서 소

금과 빛으로서 우뚝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는 희망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 5. 교회 밖에서, 그리고 안에서 제기될 비판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라.

싱가포르의 인종과 종교에 대한 적대적 선동 발언을 금지하는 ‘치안유지법’과 최근 개정된 ‘종교조화유지법’이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클러스터가 났다는 보도가 나오고, 한국에서 신천지가 주요 감염원이 되면서, 교회 전체가 감시의 대상이 됐다. 교회의 속성상 예배를 위해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이기 때문이다.

이 비난은 안타깝지만 피할 수 없다.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에게 우리의 교리와 가르침을 이해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 고통스러운 비난은 교회 지도자들이 내리는 결정에 교회 안에서 사사건건 나오는 비난이다. 예배 중단과 결정하면, 믿음이 부족하다고 비난한다. 계속 모이기로 결정하면, “사회적으로 무책임하다”고 조롱한다.

코로나19 감염사례가 확인된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다면, 교회 위원회나 당회의 회원에게서, 또 회중석에 앉아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서 전에 있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 한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적 확신과 공동보조에 대한 지식에 기초해서 교회의 결정에 반응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히 기도할 준비를 해야 한다.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모두를 기쁘게 할 수는 없는 현실에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교인을 잃게 될 것이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 싱가포르에서 그 사이에 교회출석률이 20-30% 감소됐다.

(16면으로 계속)



## 시론

### 5월의 애가(哀歌)



최해근 목사 (용고메리교회)

매년 5월은 국가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어린이주일과 아버지주일을 지키면서 부모님들과 자녀들을 향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돌아보며 가정을 다시금 세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은 자연이 새로운 생명체의 움직임으로 채워가는 이 아름다운 계절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가정들에게 가장 아프고 슬픈 계절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가장 많은 고통과 희생을 치르신 분들은 양로원에 계시는 연로하신 부모님들입니다.

지난 5월 9일자 뉴욕타임스에 실린 자료에 의하면 미국내의 전체 감염자 중에서 11% 사람들이 양로원과 같은 장기 요양시설에 계시던 분들입니다. 미국 전체 감염된 인구의 11%를 차지하지만,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을 기준으로 하여 보면 전체 희생자 중 33%가 양로원에 계시던 분들이었습니다. 특히 일부 주의 경우, 예컨대 펜실베이니아주의 경우에는 노인들의 희생비율이 무려 66%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수치는 한인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에서도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상조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3월 21일-4월 20일 한 달 동안 돌아가신 상조회 회원들의 숫자가 평소의 5배가 넘는 125명에 이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었던 이민생활 1세대의 마지막 떠나시는 길이 평안함으로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 모두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 곁을 떠나는 것도 아픈 일인데 더욱 더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생애 마지막 순간을 철저히 외롭게 고독하게 떠날 수밖에 없다는 현실입니다. 병실에서의 면회가 허락되지 않는 가운데 계시다가 마지막을 맞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장례 절차도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하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인(死因)이 코로나와 전혀 관계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고인의 떠나시는 길을 유가족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 슬픔과 위로를 나눌 수 없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허전함을 남기고 있습니다.

올해 아버지주일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운 아버지주일이 되었습니다. 양로원에 계시는 부모님들을 찾아뵙고 따뜻한 인사도 나눌 수 없는, 마치 다른 세계에 계시는 것 같은 아픔과 나픔을 가진 채 아버지주일을 보내었습니다. 낯선 곳, 언어가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이민자의 첫 걸음을 걸으시다 생애 후반부에 이전 어느 때보다 더 불안하고 외롭고 힘든 고통의 시기를 또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죄송스럽고 마음이 저러오고 가슴이 멍멍해 집니다.

코로나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는 아이들은 전체 코로나 입원환자의 1%도 되지 않는다는 자료를 접하면서 이민 1세로 척박한 삶의 길을 걸으셨던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 모든 짐을 2세와 3세를 위해 당신들이 다 짊어지고 생애 마지막을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찾아뵙고 인사드릴 수도 없는 이 시기를 지나며 우리의 슬픈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너무 죄송합니다.” 그 아프고 외로운 순간들을 홀로 걸어가시도록 할 수 밖에 없는 이 코로나 현실 앞에서 텅 빈 가슴을 움켜잡고 그저 울적이며 안타까움을 토할 뿐입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 아픔의 시간을 오직 ‘믿음’ 하나 붙잡고 모두 잘 견디시고 아름답고 푸른 계절에 다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살림...

thechoi82@yahoo.com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기독서적/일반서적/베스트셀러/성구/성화책자/가운/교회용품/영문성경/영문기독서적  
**교회·사업체·달력·기념패전문**  
 뉴욕(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8 Flushing, NY 11358  
 뉴저지(Tel. 201)346-0030 5 Birken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과목: -무통 위 내시경, -무통 대장 내시경, -조기 위암, 대장암, 색소암 진단,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지경사, 지방간, -직장 초저기질염, -직장 특수검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술  
 매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베데스다 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진료.안내: -치아임플란트, -구강외과, 틀니, -보철치과, -미용성형치과, -신경 및 잇몸치료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7

The Korean Christian Press **www.chpress.net**  
**기발한 광고의 주인공이 되세요**  
 미주 지역 매주 7천부 배포, 확실한 광고 효과  
 347-223-1531 718-886-4400  
 chpress.kjs@gmail.com info@chpress.net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 다시 일으켜 세우는 손길

4월말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300만이 넘었고 미국 확진자는 100만이 넘었습니다. 미국 사망자가 오랜 베트남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미군 사망자 수보다 더 많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바이러스는 지금껏 인류가 경험했던 어떤 재앙보다 더 강력하게 전 세계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구촌의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올 연말, 미국 타임지가 '올해의 인물' 대신에 코로나바이러스를 '올해의 바이러스'로 선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미 많은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밀레니엄버그(Y2K, 2000), 탄저병(Anthrax 2001), 웨스트나일(West Nile Virus 2002), 사스

(Sars, 2003), 조류인플루엔자(Bird Flu 2005), 이콜라이(E Coli, 2006), 돼지인플루엔자(2009), 에볼라바이러스(2014), 메르스바이러스(2015), 지카바이러스(2016)... 이외에도 걸프전쟁(1990), 로스앤젤레스 4.29폭동(1992), 노스리지 지진(1994), 9.11테러(2001), 버지니아 공대총기난사사건(2007),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2008), LA인근 라하브라 지진(2014), 연방수사 당국의 LA자바시장 급습(2014), 허리케인 하비와 어마(2017) 등등... 모두 어떤 사람에게든 평생 지울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안겨준 끔찍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중에 여러 사건들을 제가 직접 겪었고, 또한 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겪었습니다. 우리에게 예고 없이 찾아와 고통을 주고 상처를 남긴 사건들... 그 고통의 자리에서 우

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먼저, 고통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의 제 공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고 따라서 도덕적인 책임도 없으십니다. 인간의 고통은 죄의 결과이고, 그 뒤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사탄의 목적은 도적질, 죽음 그리고 파괴입니다.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도구임을 알아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이란 귀머귀 세상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통은 죄인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징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

께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우리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도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그릇으로 빚으십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반석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가 겸손해지며, 거짓 없는 진실한 신앙인이 됩니다. 우리의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도구로 변화됩니다. 마지막으로, 고통이 우리가 혼자서 아픔을 깨닫게 하는 도구임을 알아야 합니다. 에밀 라누(Emil Renouf)의 '돕는 손(The Helping Hand)'이란 그림 안에는 심각한 표정의 어린 소녀와 웃고 있는 노인이 작은 배의 노를 젓고 있습니다. 어린 소녀가 가느다란 손으로 힘겹게 노를 젓는

반면에 노인은 어린 소녀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힘차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이 배는 과연 누구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나 홀로 내 인생의 배를 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배에 타신 하나님께서 노를 젓고 계십니다. 그분은 절대 나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그리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고통에서 건져 주시는 '나의 돕는 손길'이십니다.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나의 돕는 손길'이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고통의 자리에서 별책 일어서 시기를 기원합니다.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시 139:10).

# 푸/른/초/장

정준성 목사  
(뉴욕 주사랑장로교회)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존의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당장 먹을 밥이 없어 저지른 범죄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영혼이 병들어 저지른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을 깨끗이 유지하기 위해 매일 죄를 회개하고 용서 받아야 합니다.

생깁니다. 한 번씩 생각이 나면 화가 납니다.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의 죄가 짙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막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습니다. 영혼의 깨끗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성도가 '미움'이라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옥한흠 목사님의 책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옛날에 전쟁을 겪을 때

고 참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화가 나고 그 사람이 미워지면, 기도가 막히고, 영혼에 먹구름이 끼는 것을 즉시 깨닫습니다. 마음속에 죄 된 감정을 하나도 건널 수 없어 괴로워하며 그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한 결백증은 영혼이 깨끗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죄에 더욱 민감하시고,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들을 불러 결산한다. 1만달란트 빛진 자가 들어온다. (당시 유대나라가 로마황실에 바치는 세금이 1년에 8백달란트였다고 하니, 1만달란트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1만달란트 빛진 종이 값지 못하자, 임금이 엄하게 명한다. '저 놈도 팔고, 처치식도 다 팔아라!' 1만달란트 빛진 종은 오히려 사정한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임금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1만달란트 빛을 전액 탕감해준다. 그 사람이 엄청난 빛을 전부 탕감 받고 신이 나서 집으로 가는데, 1백데나리온 안 같은 친구를 만난다. (1백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의 100만분의 1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1만달란트 빛을 탕감 받아 놓고, 1백데나리온 안 같은 친구를 감옥에 가두어 버린

모든 사람의 재산을 전부 합쳐도 100억불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은 100억불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큼니다. 우리가 그 빚을 갚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진 빚을 모두 갚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었으니, 이제 너는 너에게 잘못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 6장 12절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용서를 체험한 성도는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줍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성도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하며 힘들게 용서하면 또 나를 괴롭힙니다. 용서하기 힘든 이유는 수도 없이 많 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주님께 솔직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머리로는 용서해야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내가 죄인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나의 적나라한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노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크신 용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깊이 묵상하면, 나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존의 문제만 해결되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에 쓴뿌리가 생기고, 여러분의 영혼에 먹구름이 끼고,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고,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미움과 증오로 오염되지 않도록, 늘 민감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하여, 광방에 들어가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john.junsoong.jung@gmail.com

## 용서와 기도 마태복음 6장 12절

예수님은 '죄 용서받는 것'을 (1)목욕하는 것과 (2)발 씻는 것으로 설명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바닥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요13:10). 첫째로, '목욕'은 '죄의'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둘째로, '발 씻는 것'은 날마다 회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죄인들과 섞여 살다보면 마음으로 죄 지을 일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2절 상반절 '우리에게 죄 지은 자'라고 표현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죄를 짓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 중에, 일부러 남에게 해코지하며 사는 사람은 얼마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남들로부터 당하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남들로부터 매일 당하고 살아도, 참고 또 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참아도 마음에는 상처가

는 웬만큼 더러워도 씻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때는 씻지 못해서 발 냄새가 진동을 해도 더러운 발 그대로 이불 속에 들어가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몸을 청결하게 유지하다 보니, 조금만 땀을 흘려도 견디지 못하고 바로 샤워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다르지 않습니다. '의롭다' 함을 받기 전에는 온갖 죄를 범해도 아무렇지 않았습디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보고 왜 죄인이라 그래?' 하면서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롭다' 함을 받고 나니 죄에 민감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나쁘게 하면 맞서 싸우지 않

다. 임금이 그 사실을 알고 엄히 꾸짖는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33절). 예수님은 비유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리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35절).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우리는 누구일까요? 1만달란트 빛졌다가 전액 탕감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R. C. Sproul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예를 듭니다. 만약에 내가 만불 빚을 졌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갖고 감옥 신세를 면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100억불을 빚졌다면, 어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아는

면 주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할 때는 '그 정도였으면 그냥 용서해주시, 뭐 그렇게 끔 하고 있냐?'고 쉽게 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정작 내가 나쁜 일을 당해서, 내가 용서해야 할 때는 어떤가요? 좀처럼 용서가 잘 안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지 않습니까?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아도, 실제로 용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늘 나에게 피해를 끼치고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반복해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주님 앞에 엎드려

이러스에 빠르게 적용되면서 대량으로 생산 가능해야 한다. 그래야만 빠른 진단이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는 공공 의료 수용력을 키우는 것이다. 의사나 간호사, 의료 기술자, 간병인 등 모든 종류의 의료진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병원집대나 집중치료 병상, 인공호흡기 같은 의료자원도 있어야 한다. 그냥 충분한 수준이 아니라 과잉될 만큼 갖

추고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초과수용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서는 정치적 의지 부분이다. 이 같은 일련의 대비 과정에 돈을 쓸 수 있는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 앞으로 3-4년 안 혹은 차기 대선 전까지 대응 팬데믹이 오진 않겠지만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쓸 수 있는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 팬데믹은 언젠가는 다시 발생할 테니 말이다

## 야생동물 접촉, 도시 밀집 현상은 확산률 높여

다. 앞 (2면에서 계속) 하지만 우리는 이런 감염병의 대유행을 통제할 수 있다. 과학이 있고 기술의 발전이 있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정치적 의지가 있고 자원을 잘 활용한다면 미래의 전염병을 통제할 수 있다. 최소한 이러한 신종 바이러스가 나라 전체 혹은 전 세계로 퍼지는 전염병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이

해 얼마나 준비돼 있다고 보나. 그리고 향후 이 같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우리는 분명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4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다. 바로 과학, 기술, 공공보건, 정치적 의지다. 현재 우리의 과학은 매우 훌륭하다. 지금도 연구를 계속하

는 과학자들은 야생동물에게서 새로운 바이러스를 찾아내고 야생에 어떤 바이러스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들 중 인간에게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 건 무엇인지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며, 이런 연구를 할 때 많은 과학자들이 필요하다. 둘째는 기술이다. 신종 바이러스에 빨리 적용할 수 있는 치료법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진단 키트도 마찬가지다. 신종 바

이러스에 빠르게 적용되면서 대량으로 생산 가능해야 한다. 그래야만 빠른 진단이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는 공공 의료 수용력을 키우는 것이다. 의사나 간호사, 의료 기술자, 간병인 등 모든 종류의 의료진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병원집대나 집중치료 병상, 인공호흡기 같은 의료자원도 있어야 한다. 그냥 충분한 수준이 아니라 과잉될 만큼 갖

추고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초과수용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서는 정치적 의지 부분이다. 이 같은 일련의 대비 과정에 돈을 쓸 수 있는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 앞으로 3-4년 안 혹은 차기 대선 전까지 대응 팬데믹이 오진 않겠지만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쓸 수 있는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 팬데믹은 언젠가는 다시 발생할 테니 말이다

Q. 우리는 코로나 이후 출현할 수 있는 새로운 팬데믹에 대

다윗과 사울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 슬픈 조카를 불렀다. 사울과 요나단은 아름다운 사람들이며 백성들에게 붉은 옷을 입히고 비싼 장신구를 채워 줄 정도로 백성들을 잘 돌보았다고 노래한다. 요나단은 몰라도 사울까지 그렇게 다윗이 슬픈 조카를 불러줄 필요는 없었다. 의로운 친구였던 요나단에 비해, 정작 사울은 한마디로 다윗에게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열심히 전쟁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 승리하고 돌아왔음에도, 당연히 환영하고 축복해야 마땅할 왕이요 장인이었던 사울은 오히려 다윗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나지 않았던가. 죽을 죄를 지은 것이 아님에도 살기 위해 광야를 짐승처럼 숨어 다니고 미친 척 연기도 해야 했던 그런 기막힌 사연을 제공한 자가 사울이었는데, 어떻게 그를 위해 슬픈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인가.

사울은 다윗 개인에 대한 잘못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은혜를 잃어버린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가운데 가장 약한 베냐민지

족자락을 베고 마음에 아픔을 느낀 것처럼, 그의 죽을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애통하며 저들의 공격을 백성들에게 전하기에 열심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쓰시는 사람의 모습이다.

다윗의 삶과 신앙의 인격은 양을 치는 초원에서든, 사울에게 쫓기던 광야에서나, 왕의 모습으로 권세를 가졌을 때나, 혹은 자신이 범죄했을 때라도 늘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다. 한결같이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며,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대로 마음과 행위와 말을 드러내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남이 잘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의 잘 안 되면 위로는 하지만 자신이 그 입장이 안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안도의 숨을 쉰다. 그러나 다윗은 남다른 사람이다. 그는 남이 잘되는 것을 기뻐하고 다른 사람의 죽음과 실패를 슬퍼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삶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남이 잘되는 것을 기뻐해야지, 남이 잘 안 된다는 소식에 기뻐하는 복 없는 인생은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침내 그는 그가 관심과 배려를 나누었던 그 백성들의 지도자로 복권이 되었다. 역시 지도자감은 평소의 준비된 말과 행동을 통해 충분히 증명되는 것이다.

자기애와 헌신

그러므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생각 자기가정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나만 살고 보자는 사람, 내가 싫으면 안하겠다는 사람.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사람, 한마디로 자기애가 충만한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가 신앙인이면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쓰시지 않는다.

왜 그런가? 헌신이라는 단어가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누가 헌신할 수 있는가? 끊임없이 남을 보호하고 배려하며 보살피는 사람이다. 그는 마침내 쓰임 받는 사람이 되고 그들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신경 쓰면 머리가 아플 것이고 생각이 복잡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에 직면함에 있어서 회피하지 않는다. 머리가

한 것들만 알고 싶어 하고 기억하기를 즐겨한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애를 써서라도 지워버리려 한다. 그러나 지도자로 헌신된 사람은 자신의 필요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행하기를 즐겨한다.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물론이, 사울의 종 시바가 대답한다. 므비보셋이 절뚝발이가 되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고 말한다. 그가 절뚝발이가 된 배경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음을 알고 유모가 안고 도망하다가 떨어져 그렇게 된 것이다. 할아버지 사울의 죄가 가문과 손자의 고통을 가져온 것이다.

왜 유모가 도망을 가는가? 유모도 사울이 다윗에게 죽을 죄를 지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윗은 배려의 마음으로 므비보셋을 찾았다. 그리고 그와 한상에서 먹는다는 말로서 그의 왕자의 신분을 회복시키고 그에게 사울의 재산을 다 돌려주었다.

그런 와중에 다윗이 처음 므비보셋을 찾아 만났을 때 성경의 장면은 감동을 준다. 므비보셋은 말한다. '이 종이 무엇이란 데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코로나바이러스가 현재 온 세상을 위협하는데 장차 이것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를 유발시키는 생물학적 세균무기를 만들어 사용하면 이 세상 종말이 올 것이라는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지요?  
- 하버에서 이희은

**A:** 중국 우한지역에서 작게 시작한 바이러스가 전세계 5대양 6대주를 넘나들며 전 인류를 위협하고 죽이는 최고의 위기 상태인 팬데믹에 이르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염병 위험수준에 따라 1-6단계의 경보단계를 설정합니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6단계가 팬데믹입니다. 팬데믹은 "전염병경보 최상위단계"를 의미합니다. 과거에 유럽은 흑사병으로 약 1억명의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1918년에는 스페인 인플루엔자로 5000만-1억명이 죽었습니다. 한국에서도 15만명이 이것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세균은 항생제를 투입하면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세균의 1/1000 사이즈로 아주 작는데 항생제로 잘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은 세계멸망 10대 시나리오를 발표했는데 1)새로운 합성 바이러스 위험 2)인간통제를 벗어난 인공지능 3)핵전쟁의 위험 4)지구온난화를 통한 기후재앙 5)지구를 빨아들이는 인공 블랙홀 6)스스로 진화하는 변종 바이러스 7)외계 생명체의 공격 8)수퍼 화산 폭발 9)소행성 충돌 10)별의 붕괴라고 했습니다.

창조질서 인위적 조작으로 인류멸망 자처

이번 코비드바이러스는 내셔널지오그래픽이 말한 세계 멸망 6번째의 시나리오로 "변종바이러스"입니다. 보통 바이러스는 몸 안에 들어가면 인간의 면역세포인 인터페론과 자연 살해세포인 NK세포(natural killer cell)가 1차로 그들과 싸웁니다. 그래서 발열현상과 염증현상이 몸에 일어납니다. 감기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몸에 열이 나는 것은 면역체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바이러스는 열에 약합니다.

1차 면역세포로 죽지 않으면 2차로 살해세포인 T세포에 의해 대부분이 싸워 패배를 당해 죽게 됩니다. 인체 안에는 T세포가 1000억 개 정도 있고, 종류도 2500만 개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바이러스는 죽지 않고 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변이를 일으켜 보다 강력한 변종바이러스로 바뀌기도 하는데 이것을 RNA바이러스라 불립니다. 이 변종바이러스는 인간 면역체계(Immune system)가 인식하지 못하는 바이러스이기에 결국은 그 바이러스는 숙주인 그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생겨날 가능성이 큼니다. 이번에 생긴 바이러스의 경로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중국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 실험실에서 누출되어 감염되었다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북한이나 소련, 중국 우한에 있는 바이러스 연구소를 통해 연구한 새로운 합성바이러스가 만약 생물학 세균무기로 사용된다면 그 결과는 현재보다 수십 배 이상 치명타를 가하여 모든 인류가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소련이나 북한, 중국에는 이런 강력한 생물학적 무기(Biological bomb)가 많다고 합니다. 핵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실제 1979년 3월 소련의 생화학 무기공장에서 합성 바이러스인 탄저균(Bacillus anthracis)이 새어나간 사고로 순식간에 수백명이 죽은 "생물학적 체르노빌"이라고 불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인류멸망 시나리오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창조의 질서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인간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입니다. 핵이나 유전기술 등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인간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계속 넘는다면 더 큰 재난이 올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과학기술에 의해 인간이 스스로 희생양이 되어 자폭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는 완장을 차고 설치는 인생이 신되지 못한다. 헌신되지 못하면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한결같은 사랑과 배려의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을 복되게 사용하심을 기억해야 한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헌 davidjeon@yahoo.com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참되고 복된 지도자

-자기애와 상식, 헌신과 배려

파 출신이다. 게다가 가난하고 약한 기스 집안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왕이 되었다면 한마디로 망국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은혜를 한결같이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은혜 배후신 하나님보다 자기 머리에 쓴 왕관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교만에 빠졌다.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왕관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을 친다. 결국에는 예배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버렸고, 아들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기 위해 충성스런 다윗을 죽이는 데만 모든 힘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순간에도

그런 약한 사울이 죽었음에도 다윗은 축가가 아닌 슬픈 노래를 부른다. 상식적으로 기대했던 당연한 행동을 벗어난 의외의 행동을 통해, 많은 사람을 감동케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그럴 때 참 짧은 순간임에도 평소 준비된 그의 사람 됨됨이를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예를 들면, 콘테스트에서 우승한 후 모든 이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공적과 자랑을 뒤로하고, 그 짧은 순간 모든 시간을 스태프 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조근조근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는 정말 영적으로 잘 훈련되고 준비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즉흥적으로 연기를 한다고 되지 않는다. 삶의 반향인 것이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다윗으로 하여금 슬픈 조카를 부르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굴에서 그의

주님의 마음, 주님처럼

사울과 요나단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곧 주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삶에도 자신을 위한 사사로운 것이 없었다. 아무리 급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죄인의 자리에 있던 이들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며 자신이 보살피고 돌아보아야 할 연약한 사람의 일들을 잊지 않으셨다. 주님의 이 마음이 그의 인생에 확장될 때, 그는 주님처럼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고 보살피고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인물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헌신이 요구될 때 헌신하지 않는 것은 자신만의 결정에서 끝날 무심한 일 정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시지 못하는 증표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늘 자신의 일이 아닐지라도 이웃의 고통을 헤아리고 함께 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쓰시는 것이다. 일반은총 안에서든 당연히 그러하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너무나 명확한 것이다.

미안마의 아웅산 수지 여사가 민주화운동을 할 때 가택연금으로 십수년을 고통가운데 지나고 있었다. 그렇게 집안에 갇혀있어도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담장을 넘어서 백성들에게 전해졌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자기 몸 하나 잘 돌보기 어려운 때에도 늘 끊임없이 백성들을 생각하는 말들과 관심을 드러내더라는 것이다. 마

아프고 복잡한 상태를 경험하는 일임에도, 놀라지 않고 그러한 일과 내용들이 몸에 익숙한 듯 받아들이고 행동하더라는 것이다. 헌신과 배려의 훈련이 잘된 증거이며, 이런 사람이 참된 지도자이다.

성경은 자기만 생각하는 삶을 배격한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것인데, 어떻게 나만 생각할 수 있겠느냐? 결국 자기 주의자가 될 수 없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만 생각해 보아도 이해가 된다. 성도라고 하면서 어떻게 자기 기분, 자기 몸뚱아리만 생각할 수 있겠는가? 자식이라고 하면서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고, 모든 관계를 다 잘라버리고, 자기 가정 밖에 모르고 산다면 과연 그는 어떤 인생이 될 것인가? 홀로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의 낙을 누리는 복 있는 존재일까?

그렇지 않다. 그는 결국 부모도 자식도 가정도 돌보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다. 자신의 헌신과 배려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위치를 내어버림으로 스스로 그들을 향한 리더십의 복을 던져버린 것이다. 섬기는 만큼 섬김의 능력이 제공하는 리더십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배려와 사랑

다윗은 헌신과 배려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말을 기억한다. '네가 왕이 될 것인데, 그때 내 자식들을 부탁한다'는 말이었다.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 자신의 삶에 필요

나이까?' 무슨 말인가? 민폐만 끼칠 뿐 왕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나를 찾으십니까? 라는 뜻이다.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생각하면 먼저 찾고 청탁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다윗을 염려하는 모습이다.

더군다나 자신을 '죽은 개'같은 비유는 지극한 겸비한 마음의 표현이다. 자신의 처한 위치가 어려움에도 다른 사람을 향해 배려의 말을 할 수 있는 므비보셋같은 성숙한 인격은 능히 다른 사람을 감동케 하며, 다윗 왕과 한상에 앉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다.

한결같은 성품

므비보셋에 반대되는 인물이 시바이다. 다윗 왕이 불려서 물었을 때, 시바는 다윗에게 잘 보이려는 의도로 므비보셋의 약점을 나쁘게 표현한다. 이전에 사울 왕을 모시던 사람이었는데, 옛 주인 왕의 손자인 므비보셋의 단점을 가지고 그를 강조하듯 표현한다. 상대방에 대해 배려와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시바의 식솔들이 모두 그 므비보셋을 섬기도록 임명이 되었다.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성품의 결론이다.

행편이 변했다가 한결같이 남을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은 복이 없다. 일제 강점기 때 집안의 머슴이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출세했다고 고향을 찾아온다.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 온 것이다. 그리고 부모부터 섬기던 주인을 감싸, 감싸방이라고 부른다. 그러다가 6.25전쟁이 터지니, 이제

###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 라오스의 사에크(SAEK)

사에크(타이 세크)족은 라오스 중부의 메콩강 부근에 거주하며 일부는 태국 북동부와 베트남 국경 부근에 산다. 사에크족은 사에크라고 불리는 디악(Diak)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북부 타이어에 속한다. 많은 사에크족 사람들은 라오스어도 함께 사용한다.

끊임없는 중국인들의 압력으로 타이족은 중국에서 남쪽으로 이주했고 그러면서 또한 많은 종



족들을 정복했다. 13세기경 마침내 라오스 땅에 정착했는데 다른 종족들과 마찬가지로 사에크족도 광범위한 문화적 접촉을 경험하면서 라오족과 타이족 문화에 동화되었다. 여러 차례 전쟁의 역사를 거친 라오스는 베트남, 러시아, 중국의 정치적 경쟁의 대상이 됐다. 이러한 격동의 역사를 거치면서 라오스인들의 분열이 시작됐고 또한 태국도 정치적 쿠데타와 소요를 겪으면서 많은 정치적 변화들을 경험했다. 수년에 걸친 처절한 전쟁들이 사에크족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 삶의 모습

사에크족은 사회전반에 걸쳐 타이와 라오족문화를 흡수했다. 그러나 잘 보존된 사에크 여성들의 "원형춤(round dances)"은 여전히 사에크족만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잘 나타낸다.

사에크족의 가옥은 전형적으로 대밭 위에 나무나 대나무로 지어진다(고상식 가옥). 집마다가 금류(담, 돼지, 염소 등)들이 고상 식으로 지어진 집 아래 공간에서 자유롭게 키워진다. 농지는 보통 주거지와 인접한 곳에 위치한다. 쌀이 사에크족의 주요 농작물이기는 하지만 자체 소비와 판매를 위해 다양한 다른 농작물들도 재배한다. 물고기를 잡고 사냥을 하는 일도 중요한 활동에 속한다. 사에크족은 문순기(우기)에 쏟아지는 강우량만으로 논과 밭에 필요

한 물을 충당한다. 사에크족 남성들은 논밭을 경작하고, 집을 짓고, 물고기를 잡고 사냥을 한다. 반면 여성들은 논밭의 잡초를 뽑고 추수를 도우며, 상풍으로 판매할 것들을 나른다. 아주 극소수의 사에크족만이 도시로 이주한다. 사에크족은 라오족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고기와 야채들을 옷이나 소금과 교환한다. 사에크족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단위는 촌락이다. 각 촌락들은 각기 독립적이며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하는 수장이 마을마다 있다. 부계중심의 핵가족 또한 사에크족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라오스에 살고 있는 소(So)족과 통혼하는 것은 이미 사에크 사회의 일반화된 풍습이다.

사에크족은 라오스 사회의 주류계층에서 격리되었기 때문에 보다 발달된 문화, 경제, 교육 기

회를 항상 갈구하고 있다. 1950년대 이래로 라오족, 북부 베트남, 중국인들의 지원을 힘입은 공산주의 군대가 촌락민들의 생활을 혼란케 했다. 정부군과 공산주의자들 사이에 벌어지는 계속되는 전투로 사에크족 사회는 지을 수 없는 전쟁의 상처를 갖게 됐다.

### 신앙

주변국들의 강한 불교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라오스의 사에크족 대부분은 자신들의 전통민속종교를 지키고 있다. 예를 들면 조상숭배는 아주 보편적 현상이다. 조상신들이 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 이영혼들을 잘 달래야만 한다. 자연계에 속한 다양한 영혼들의 존재를 확신하면서 또한 각 촌락마다 "수호신(guardian spirit)"이 있다고 믿는다.

### 필요로 하는 것들

1980년대 이래 라오스와 베트남 공산군대의 압력은 태국 북동부 지방에 혼란을 야기시켰다. 특히 타이 사에크족이 많이 살고 있는 나콘파놈(Nakon Panom) 주에 큰 타격을 줬다. 사에크족 사람들은 라오족이나 태국정부보다는 자신들의 촌락에 깊은 충성심을 갖는다. 따라서 정부는 사에크족이 라오스와 깊이 관계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사에크족은 전쟁의 상처들을 치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나 정부관계자들을 대할 때는 보다 나은 교육과 정치적 지혜가 필요하다. 라오스와 태국에 사는 수천명의 사에크족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 선교단체는 한 단체 뿐이다. 현재 사에크어로 된 성경이나 기독교방송은 없다.

## 인터넷 뉴스

### Internet News

#### 오순절 대가 도널드 데이튼 박사 별세

미국의 오순절 교회사 가이저 성결운동 대가인 도널드 W 데이튼(사진) 박사가 지난 2일 별세했다. 향년 78세. 데이튼 박사는 노스웨스턴신학대 학원, 드루대 교수를 지냈고 서울신대 객원교수로 활동했다. '복음주의 유산' '오순절운동의 신학적 뿌리' '미국 복음주의 교단사' 등 100여권의 저서와 논문 등을 남겼다.



그는 오순절 신앙과 웨슬리안운동 등 기독교 복음주의가 단순히 영적인 차원에만 국한하지 않고 사회 참여까지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로널드 사이더, 짐 윌리스와 함께 '시카고 선언'에 참여하기도 했다.

데이튼 박사는 오순절 신앙의 학문적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으며 2차 대각성운동이 성령운동과 사회개혁을 동시에 추구했다는 것을 증명했다. 2차 대각성운동은 정통신앙과 도덕생활의 확립, 국가사랑, 노예제 폐지, 선교 등을 강조했다.

#### 아동 성착취 영상 근절 '조강경법안' 상정

미국 의회가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근절하기 위해 조강경 법안을 마련한다.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수사 인력 및 역량을 늘려 단속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뉴욕타임스(NYT)는 5일 이번주 미 상·하원에서 아동 성착취 영상을 만들거나 본 사람들을 처벌하는, 역대 가장 강력한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아동 성착취 영상을 근절하기 위해 연방 수사기관에 관련 요원을 200명 가까이 늘리는 등 향후 10년간 50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내용이다.

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아동 성착취 영상 수사 목적으로 연방수사국(FBI)에 100명, 법무부에 90명이 추가 채용된다. 주 단위 수사기관에도 관련 예산으로 매년 6000만달러를 지원한다. 아동 학대 문제와 관련해 연방정부부도 도와온 비영리단체인 실종학대아동방치센터(NCMEC)에도 매년 1500만달러를 지원한다. 요타 소라스 NCMEC 고문은 "지원금으로 65명을 신규 채용할 것"이라며 "이들은 수사기관에 전달할 아동 성착취 영상 관련 보고서를 검토하는 분석가들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법안이 시행되면 IT기업들에 대한 수사당국의 강제력도 강화된다. 지난 수십년간 IT기업과 기술자 등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암호화된 사용자 데이터를 해독해달라는 수사당국의 요청에 저항해왔다. NYT는 "그간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암호화된 개인정보에 대한 수사당국의 접근이 제한됐는데 이 역시 없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드롭박스, 인스타그램, 클라우드플레이 등 IT 기업들의 아동 성착취 영상 관련 증거 보관 기간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2배 늘어났다.

이번 법안이 나오게 된 데는 NYT의 '아동포르노' 보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NYT는 아동 성착취 영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7000만건의 문제 사례가 당국에 보고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2008년에도 아동 성착취

영상을 단속하는 법안이 만들어졌지만 수사 당국의 예산 및 인력 부족, IT기업들의 소극적인 대처로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다. 새 법안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 인력과 예산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 평양인근에 새 미사일시설 완공 관측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5일 북한이 평양 순안국제공항 인근에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새로운 시설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 관측했다. 약 44만2300㎡ 규모로 북한이 보유한 모든 탄도미사일과 이동형 발사대를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크기다.



CSIS 소속 조셉 버무다즈 선임연구원은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에 게재한 보고서를 통해 "완공을 앞둔 신리의 신규시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밝혔다. 시설이 차량 이동도로로 연결된 3개의 대형 건물과 대규모 지하시설, 위성에 관측되지 않도록 가려진 철로 터미널, 주택단지 등으로 구성돼 있는 점이 서해 위성발사장, 신포 조선소 건설 때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CSIS가 근거로 제시한 상업용 위성사진에 따르면 3개의 건물은 서해나 동해에 위치한 그 어떤 위성 발사시설보다 규모가 크다. 가장 천장이 높은 건물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은 물론이고 북한이 보유한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다. 특히 해당 건물은 이동형 발사대에 설치된 ICBM을 발사 위치까지 쉽게 끌어올릴 수 있는 높이를 갖췄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보고서는 "신리 시설의 정확한 기능은 불분명한 상태지만 시설의 구조와 크기, 지하시설 등을 감안했을 때 근처의 탄도미사일 부품 제조 공장들에서 기차로 실어온 부품들을 조립하는 공간으로 추정된다"며 "지난 10년 간 현대화와 확장을 거치고 있는 북한 탄도미사일 기반 구조물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평양에서 북서쪽으로 약 17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시설을 2016년 중반 이후부터 건설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6월까지 건물 외관이 완성됐고 이후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와 같은 속도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가동 준비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 아동 괴질환자, 뉴욕서 64명 발생

뉴욕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연관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어린이 괴질환자가 64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는 6일 보건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뉴욕주에 어린이 괴질환자 64명이 입원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주 보건당국의 의료 전문가들은 건강관련 권고문을 발표하고, 이 환자들이 코로나19 증상과 병발할 수 있는 여러 증상을 동시에 보였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뉴욕 시내를 포함한 주 전역에서 이런 사례가 나타났다고 한다.

뉴욕주 보건의로 위원인 하워드 주커 박사는

"다행히도 코로나19에 감염된 어린이들 대부분은 경미한 증상만을 보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위험한 폭발적 증상으로 발전하기도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어린이 괴질의 증상은 독성쇼크후군이나 가와사키병과 비슷한 특징을 보이며 관상동맥을 포함한 혈관염증 또는 열, 복통, 발진 등이 동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 보건당국은 각급 의료기관에 21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들이 이같은 증상을 보이거나 코로나19와 유사한 증상의 진단 결과가 나올 시 즉시 정밀 검사를 해서 환자 체내의 코로나19 항원 유무를 밝혀내도록 권고했다.

앞서 뉴욕시에서 15명의 어린이가 희귀병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일도 있었다. 그중 절반은 혈압 유지를 위한 응급 처치를 받았고, 5명은 인공호흡기를 사용했다고 보건 관리들은 말했다. 아직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 코로나19로 찾아온 '새 일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우리의 생활 양식은 서서히 바뀌고 있다. 일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줄어가는 추세로 채택 격리도 많이 뒤흔들며 사람들이 조심스레 집 밖으로 발을 내디디고 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새로운 일상'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난달 22일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으며 새로운 일상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달라진 일상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채우려는 곳도 하나둘 생기고 있다. 5일 NL타임즈 등 네덜란드 언론에 따르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미디어매틱(Mediamatic) ETEN'은 새 일상에 발맞춰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 비건(vegan) 레스토랑은 이달 21일부터 새로운 방식의 다이닝 경험을 제공한다. 전원 예약제로 운영하는 이 식당은 1.5m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3명 이하의 손님은 모두 유리 캡슐 안에서 식사를 하게 된다.

미디어매틱 공동 창업자인 윌름 베토벤은 지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네덜란드 전역에 있는 술집과 식당은 재개방 방법을 위해 고심했다"며 "그나마 실현 가능한 변칙적인 아이디어가 이것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3명 이상을 위한 격리 캡슐이 있긴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권장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살아남기 위해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했다며 "남은 해 동안 이것마저 할 수 없다면 식당의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른다"며 하소연했다.

영국 소매 협회는 달라진 새 일상에 쇼핑 방법도 바뀔 것이라 예측했다. 제안에 따르면 사람이 붐비는 시내 매장을 피하고 교외 아울렛을 갈 것을 추천한다. 또한, 홀로 쇼핑을 해야 하며 옷을 갈아입는 피팅룸은 폐쇄될 것이라 전했다. DIY 전문 매장인 비엔큐(B&Q)는 이달 2일 16세 미만의 고객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옷을 사는 행위 등 소비를 줄여 저금하라고도 조언한다.

제이슨 프라이드 글렌메테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는 포브스(Forbes)와의 인터뷰에서 "발표된 논문들에 의하면 앞으로 펼쳐질 새 일상에서 소비자들은 지출에 좀 더 보수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한국의 4월 말-5월 초 6일간 이어진 황금연휴에 코로나19로 집 밖을 나서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동안 억눌러왔던 소비심리를 '보복소비'로 나타냈다.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5월 초 연휴 기간(5월 1-6일) 대비 각각 7.5%·3.2%·2.6%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드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봉쇄령이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분위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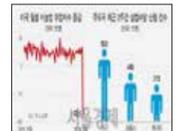
곳곳에서 관광산업 재개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독일 토마스 바라이스 연방관광위원장은 일간 타게스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를 통제할 수만 있다면 여름휴가를 자국뿐 아니라 인접한 외국에서 보내는 일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는 "단계적 봉쇄완화를 4일부터 시작했으며, 최고의 시나리오는 7월 첫날부터 관광산업을 재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리스는 유럽연합(EU) 차원에서 합의한 "아주 구체적인 프로토콜"에 따라 관광객을 수용하겠다고 밝혀 관광업계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여름휴가에 비행기 이용 등 관광지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꼭 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WHO 코로나19 특사인 데이비드 나바로는 "앞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데 익숙해져야 할 것"이라고 지난달 14일 밝혔다. 사회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집 밖을 나서기 전 마스크 착용은 새 일상을 맞이하는 모습이 될 전망이다.

#### 미, 중 최악의 실업 온다

세계 경제의 양강인 미국과 중국에서 일자리 대참사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로 현실화된 실업 대란이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1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과 할 일이 충분치 않은 사람들을 합한 진짜 실업률이 곧 25%에 달할 수 있다"며 "2분기 경기는 크게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빈 해시 백악관 경제선임보좌관도 CBS방송에 나와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20%를 넘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ABC방송 인터뷰에서 "사탕발림하고 싶지 않다. 5월 일자리 수치는 매우 나쁠 것"이라고 가세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4월 실업률은 14.7%로 전달보다 10.3%포인트 상승했다. 실업률은 월간 기준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이며, 일자리 감소는 대공황 이후 최대치다.

미국에선 지난 주말을 거치며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뉴욕주 등 3개주를 제외하고 사실상 전역에서 경제활동이 재개됐다. 므누신 장관은 "경제활동을 재개하지 않는 것은 경제에 영구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미국에 큰 위험을 가할 수 있다"며 경제활동 재개를 강조했다. 그러나 성급한 결정이라는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환자는 132만명, 사망자는 8만명을 넘어섰다.

'세계의 공장' 중국도 최악의 실업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은 도시 실업률이 지난해 12월 5.2%에서 지난 2월 6.2%로 높아졌다가 3월에 다시 5.9%로 떨어졌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국에는 1억4900만명의 자영업자와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일하는 1억7400만명의 농민공들이 있는데, 이들의 폐업과 실직은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춘제(春節·설)를 맞아 고향으로 떠난 농민공 5000만명 이상은 일터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또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 내 1억4900만 자영업자들의 1분기 수입은 평균 7.3% 감소했고, 도시 지역 자영업자들은 12.6%가량 수입이 줄었다.

HSBC의 취흥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19년 중국의 도시 고용이 830만명 순증했지만, 올해는 40여년 만에 처음으로 도시 고용이 위축될 것"이라며 "1분기에 18.3%의 노동자들이 해고 또는 감봉, 무급휴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 97. 사병순(1880-1944)

사병순은 1880년 5월 17일에 평안남도에서 태어났다. 그는 평양신학교에 입학하면서 남평안 대리회 장로 총대, 평양 서면의 증산반석 방에다 리교회 장로와 남평안 노회서기를 역임하였다. 1913년 6월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후 남평안노회가 그에게 목사안수를 주어 위의 교회 윌리엄 L. 스왈론(소안론) 선교사의 동사무사로 그를 파송하였는데 총회전도국의 청원으로 남평안노회가 그를 중국 선교사로 허락했다.

#### 중국 선교사

1912년 조선예수교장로교총회는 총회조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해외선교를 결정하였고, 조선의 근간인 유교에 빛을 갠다는 취지로 유교를 창시한 공자의 고향인 중국 산둥에 3명의 '선도사'를 파송한다. 총회는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 3위를 총회 앞에 일어서서 지면례를 거행하고 유식명사 기도동 동 3씨를 하나님과 그 말씀에게 부탁하다"라고 적었다. 사병순이 선교팀과 더불어 그해 11월에 래양에 도착하였다.

선교구역은 내양에서 동서남북으로 30리였고, 120여 촌에 인구가 많았다. 래양에는 장로교, 천주교, 침례교, 루터교에서 온 해외선교사가 이미 활동하고 있었다. 래양현 지사의 잔치 초대장에 김영훈이 담례로 보낸 한시로 70여 세의 노학자 정수명이 개종하는 쾌거에 힘입어 현지 중국인들은 한국 장로교회를 "신령한 교파로 인정하고 한국 선교사를 환영"하였다.

사병순은 그의 선교팀과 함께 주일 강론회와 수요기도회를 개설하고, 필답과 전도지, 성경화본 및 칠판기를 사용하여 순회전도를 하였으며, 시장과 가정 그리고 노변에서 노방전도를 함으로써 유행전도를 했고, 사경회와 심방 등 좌당전도도 했다.

1915년 보고에 따르면 3명에게 최초로 세례를 베풀었고, 등록교인 40여명 중 30여 명이 주일예배에 참석했다. 이들 중 군인 한 사람이 믿어 감서

당에 밤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며 성경공부를 하였다. 그해 성탄절 헌금도 도서 1상자를 구매하여 래양교도소에서 나누어주며 전도했다. 이듬해 세례교인 12명과 원입교인 30명 중 40여 명이 주일예배에 참석했고, 매 주일 8, 90원을 헌금하여 한 해 헌금액이 약 50원이었다. 그리고 문맹퇴치를 위한 '보통교육'도 실천했다.



사병순(1880)

총회전도국은 1916년 산둥 선교부에 이일영과 심익현을 보내 사찰한

다했고 선교목적은 완수했으며 선교 토대 또한 구축했음을 확인했다.

#### 다뉴바 한인교회 목사

중국 선교지를 이탈한 지 3개월 후인 1917년 7월 20일에 사병순은 김영훈과 함께 '차이나'호를 타고 상항에 도착한다. 그달에 상항한인교회 이대위 목사는 환영회를 열어 이들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그해 10월 사병순이 병이 들었는데 가족채 보상기부금으로 6달러를 갚으니 이를 민망히 여겨 참가를 권한 사람에게 정색하여 "나는 이 집을 풀어놓음으로 병중의 내 마음이 위로가 되노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의 회생정신은 이뿐이 아니었다. 중가주 다뉴바와 오하이오 주 아크론과 중가주 삭스 등 먼 거리를 이주하면서도 이경의와 김석길의 병원비를 기부했고, 맨티카한인 감리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해 5달러를 헌금했다.

이듬해 9월 12일에 사병순이 제1차 세계대전 징집서류를 제출했다. 그는 1년 전에 두 다리가 부러졌다고 보고하면서 현재 중가주 다뉴바한인교회 목사라고 적었다. 이 서류에서 사순은 그의 친척임을 알게 된다.

#### 코스모폴리스 한인교회 목사

워싱턴주 코스모폴리스의 소말공장에 취직한 한인동포가 약 30명이

이에 있는 한인 여학원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신림교회'라고 불렀다. 1918년 말에 어른 230명과 아동 165명이 모였고, 호놀룰루 이외에 와이아와, 하와이, 카우아이 등에도 예배처를 마련했다. 그해 12월 여러 곳에 있던 예배처의 대표 14명이 모여 교회 이름을 한인기독교교회로 바꾸고, 사병순을 호놀룰루한인기독교회의 목사로 정병했다. 그가 1919년 호놀룰루 전화번호부의 Sa Pyung Choon이다. 그는 민찬호가 부임하던 1919년 10월 이전까지 약10개월 시무하였다. 하와이 한인이민사가 이덕희 선생이 하와이 노동 이주민 명단에 이름이 없다고 하니, 그가 사병순 Sah Pyung Soon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그는 청빙은 받았지만 부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한 연구는 다음으로 미루기로 한다.

#### 다뉴바한인장로교회 목사

1920년 8월 15일에 다뉴바 한인 기도처가 150명의 교인이 모여 6명의 장로와 6명의 안수집사를 선출하고 미국 최초의 한인장로교회로 조직된다. 사병순은 1921년에 부임했으나 두 번째 부임이다. 그해 10월 단군 성탄 기념식에서 그가 기도하였다는 이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어렵다. 그해 3월 이성환이 자동차 사고로 별세하여 조문객은 아들 하나 의지하고 살던 본국의 노모를 생각하며 참

장례식을 눈물로 집례한 후 베이커스 필드 공동매장지에 안장하였다.

평남 강서군에 거주하던 사병순의 부인 송수은이 '반석대한국부인청년단' 단원으로서 근자금 모금과 배일선전 및 불온문서 배포혐의로 1921년에 일경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그해 11월 10일자 신한민보에 게재됐다. 모진 고문을 받은 송 사모가 출옥직후 세상을 떠났고, 9세 딸 사인애는 고아가 되었으니 사병순의 마음이 산산조각이 났으리라.

#### 유타주 빙햄

사병순은 유타주 빙햄 캐년으로 이주한다. 1924년 7월의 신한민보가 병원비 기부자 명단에서 그를 목사라고 소개했으므로 늦어도 1924년에 이곳에 이주하여 귀국여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탄광에서 철도보선공으로 일하면서 자비량으로 교회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탄광으로 적을 때는 3, 40명, 맑을 때는 60명 이상의 한인이 거주했고, 자녀를 둔 가정도 있었다. 그는 이곳의 백인 빙햄캐년 감리교회를 빌려 예배와 주일학교와 한국학교를 하고, 음악대를 조직했을 것이다.

1926년 임한규가 박성근을 권으로 살인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병순이 장례식을 인도한 후 임한규를 심방하였고, 1929년 안전사고를 당한 이기열과 조문해를 위로하였고, 노동 이민의 삶을 포기하고 자살한 이선범의 장례식을 거행했을 것이다. 한인 40여 명과 내빈 20여 명이 모인 1930년 삼일절 기념식에서 개회한 직후 애국가를 합창한 후 사병순이 기도하였다. 이날 학생후원금으로 그가 7달러를 기부했는데 거금이었다.

사병순의 목회는 나섬으로 이주하던 1932년까지 8년간이다. 그해 11월 17일 그는 상항에서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 중국 텐진한인교회

한국으로 귀국했다는 사병순이 1935년에 중국 텐진에 거주하고 있었다. 1937년 1월 19일자 기독교신보는 "주야로 열심히 전도하던 김성수씨는 임기가 돼 귀국해 (현지) 머물던 전 조선장로회 목사 사병순씨가 예배를 인도하시며 수고하였다"고 보도한다. 텐진은 대동강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가 뒀던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정박한 곳이다.

그 후 한국으로 귀국한 사병순은 1944년 8월 9일 외동딸 사인애가 살던 강원도 철원에서 향년 64세로 소천하여 중리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 그의 외손자 김희준에 따르면 강원도 금화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 풀려나 한 달도 되지 않았다고 한다.

damien.sohn@gmail.com

### 중국선교사로 시작해 상항 다뉴바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시무 하와이, 워싱턴, 유타 등서 사역하다 중국 거쳐 귀국 후 별세

후 선교사 3인이 거주하던 집은 두 집에서 살림하게 하고 한 집을 더 마련하기로 한다. 그런데 박태로가 병이 중하여 그해 4월에 귀국 길에 올랐다. 이런 가운데 이듬해 1월 사병순은 평안노회에서 중화 기독교 산동노회로 이명하여 현지인 목회자와의 긴밀한 선교적 교제를 모색하였다. 이듬해 9월, 총회 보고에 따르면 많이 모이면 5, 60명, 적게 모이면 4, 50명이었고, 이중 세례교인이 28명, 하숙교인은 35명이었으며, 새신자가 26명이었다. 2명의 집사를 세우고, 6곳에 기도처를 조직했는데 이중 3곳에 보통학교도 세웠다.

그런데 사병순은 김영훈과 함께 1917년 4월에 선교지를 이탈한다. 선교활동 3년5개월만이다. 그러나 총회는 이들에게 "위로하는 문안과 이후에도 주의 일을 보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편지하기로 가결했다. 그런데 김영훈이 1927년에 '기독교신보'에 기고한 회고담에서 무단이탈한 선교가 불가능했기 때문이 아니라 총회전도국이 제반시설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빈약한 가운데서 최선을

었다. 이중 다수가 기도회를 열기로 하여 1919년에 사병순이 이곳에 한인교회를 세웠다. 그해 7월 김춘학의 부인이 재수술을 받았으니 사병순의 방문이 필요했다. 그해 10월 국민회 지방회가 조직될 때 그는 학무와 대의원에 선임되었는데 회장 김 탁, 부회장 박제목, 총무 김병학, 서기 정기현, 재무 김병모, 법무 이정실, 구제 김일만 등이 교인이었음 가능성이 크다. 그해 8월에는 한인들이 근면하다는 평가에 노동 주선인 박제목이 "몇 백명이라도 오시오"라고 크게 광고하였는데 3개월 후 일본을 배격하는 운동이 극렬하여 한인동포도 곤경에 빠져 이동하는 바람에 교회가 문을 닫았으니 사병순의 실망은 컸다. 그는 2년 전 안착한 상항으로 되돌아갔다.

#### 하와이 한인기독교회

박내선, 백락현, 송경신, 김성기, 윤계상 등 이승만을 따르던 하와이한인 감리교회 교인 30여 명이 1916년에 박내선의 가정에 모여 예배를 시작했다. 이듬해 7, 80여 명이 모여 푸우누

담한 정을 금지 못했을 때나, 그해가 저무는 12월에 김중혁의 부인이 별세하였을 때도 사병순이 함께 했을 것이다.

한국학교는 사병순에게 역점사역이었고, 교장이면서도 '대한역사'를 가르쳤다. 그해 여름학기에 등록된 학생은 남녀 43명이었고, 임시 교장에 홍지범, 교사는 최능익과 김덕세였다. 1923년 5월 3일자 신한민보는 그의 열심 전도로 매우 은혜가 있었다고 보도한다. 사병순에 따르면 한인들이 사업상 기회를 찾아 이동하여 5, 60명이 주일예배에 출석하였는데 이중 3, 40명이 어린이였으니 그의 사역이 주일학교가 중심이 된 듯하다. 주일학교 교장은 최능익이었고, 송대리는 20여 명의 유치반을 가르쳤다. 사병순은 송대리가 현재에만 재미로울 뿐 아니라 장래에도 복된 소망을 성취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해 봄 다뉴바에 홍역이 유행하였을 때 그가 고통받던 자녀를 찾아가 위로하고 기도하였었다. 그해 7월에는 와스코에서 이무경과 박화준이 탄 자동차가 기차와의 충돌사고로 그들의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b>뉴욕망양장로교회</b>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금요일기도: 오전 6:0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5:45 Tel: (718)361-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b>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b>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45 금요일기도: 오후 8:45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 Tel: (718)265-2584, www.f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b>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b>뉴욕새별장로교회</b>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Tel: (917)733-7387, chungkitae@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b>뉴욕새생명장로교회</b>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기도: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637-1470 45-50 162 St, #2Fl, Flushing, NY 11358	<b>뉴욕새사람교회</b>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예배: 오전 9:30 영 양 예배: 오전 10:45 수요일 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b>뉴욕센트럴교회</b>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pcpc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b>뉴저지성도교회</b>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8:30 (매주1주,3주) 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b>리빙스톤교회</b>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후 1:50 청년회: 오후 8:30(20분)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일 안무팀: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b>빛과소금교회</b>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후 1:50분 주일학교 오후 1:50분 청년회 오후 8:30(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 (347)513-1351, cheongsu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b>퀸즈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886-4040, www.kapcc.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b>브라질 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도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b>칠레 한인연합교회</b>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일예배: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말)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b>토론토 가든교회</b>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일기도: 오후 7:30 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b>하와이 행복교회</b>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b>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3:00 금요일기도: 오후 9:00 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b>멕시코 현지인 교회</b> 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5:00 Tel: (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17)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렌제일교회)

###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의 “설교의 기술과 목사의 소명” (1)

들어가며

필자가 설교학 서적들을 접하면서 가장 감동 있게 읽은 고전 중 하나로서, 작은 분량의 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서류 알처럼 빼곡하게 채운 알차고 빛나는 알맹이들을 모아놓은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 개혁주의적인 설교로서의 진수를 대하면서 많은 감동을 느껴 이 책을 신학교의 교재로 활용하면서 400여 년 전의 탁월한 저자와 성경적 설교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었다. 이 글을 쓰면서 “설교의 기술” 영서의 번역 본 앞에 핵심을 담은 추천사를 쓴 백금산 목사의 글

또한 2부에서는 목사의 설교와 관련된 소명을 구체적이고 다룸으로 지도자가 된 사람과 될 사람에 대한 매우 실제적인 지침을 교훈하고 있다.

#### 1. 윌리엄 퍼킨스의 생애

##### 1. 출생과 배경

윌리엄 퍼킨스는 1558년에 별칭론 교구의 마스톤 자베트라는 마을에서 토마스 퍼킨스와 한나 퍼킨스 사이에서 태어났다. 젊은 시절에는 방탕한 생활을 보냈지만 1577년에 케임브리지 대학(Christ College)에 입학해 신분상승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581년

기여를 하였다. 퍼킨스는 16세기 말기에 영국 청교도 신학을 정립한 청교도의 아버지로 평가된다. 또한 영국 청교도 신학의 기초를 다진 퍼킨스는 영국 칼빈주의 신학사상을 조직적으로 그려내면서도 간명하게 발전시킨 목사이자, 신학자라고 할 수 있다.

##### 2. 신학 사상

###### 1) 칼빈주의 표방

그는 국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회심을 통한 성도들의 영혼의 변화를 끌어내어 영국교회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그는 국교회의 제도 개혁보다는 성도들의 개인적인 변화를 통해 교회의

퍼킨스는 성도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 청교도들의 설교론을 정립하고자 하여 “설교의 기술(The Art of Prophesying)”을 저술하였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여 교리를 끌어내어 성도들의 실생활에 적용시키는 설교의 방법론을 정립하여, 회심과 성화를 추구하는 청교도의 설교의 발전의 토대를 놓았다.

그는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운동이 꽃필 수 있는 신학적이고 이론적인 토대를 구축하였다. 특히 루터, 칼빈, 불링거와 베자 등의 신학을 소화해서 영국에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참된 교회의 표식은 사변적인 신학과 외적 의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참된 신학의 적용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 3) 개혁주의 구원론과 언약신학지향

칼빈주의 이중예정론 지지자로서 테오도르 드 베자(Theodore De Beza)의 사상을 영국에 소개하면서 개혁주의의 구원론과 이중예정

## 영국 청교도신학의 아버지, 개혁주의의 구원론 채택 국교회 제도개혁보다 개인변화로 교회 변화 원해

과 주도형 교수가 “성경과 신학”에 기고한 “퍼킨스와 에임스를 중심한 청교도의 설교이해” 부분과 박현신 교수의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분석을 통한 적용 패러다임 연구”, 그리고 폴 셰퍼의 평가를 직, 간접적으로 인용하며 참조하였다.

이 책은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을 지향하는 목회자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의 자세와 내용에 대한 견고한 반석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먼저 우리는 한 시대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기까지의 시대적 배경과 과정과 동기를 먼저 살필 필요가 있기에, 먼저 그 인물의 배경과 영향력을 먼저 다룬 후에 개혁주의 지도자가 알아야 할 내용요약을 다루려고 한다.

에 학부를 졸업하고, 1584년에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로렌스 차터톤을 만나 그의 밑에서 개인교습을 받았고 그 이후 청교도 리처드 로저스(Richard Rogers), 리처드 그린햄(Richard Greenham)을 만나 청교도의 신앙의 문을 열었으며, 대학의 특별연구원으로 감사직에 임명되었다. 그 후 1589년경에 케임브리지의 성 앤드류의 교구목사로 사역을 시작해 1595년까지 그 대학의 교수를 재직했으며, 1584년부터 1602년(44세)에 죽을 때까지 그레이트 세인트 앤드루스(Great Saints Andrews) 교회의 설교자로 봉직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목회사역과 바른 신학을 통한 바른 신앙을 전파하는데 전념하여 대륙의 개혁신학을 영국에 정착시키는 데 많은

변화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그는 또한 로마가톨릭에 대항하여 칼빈주의를 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타락 전 선택설에 근거한 칼빈주의를 정립하면서 개인의 회심을 이끌어내려는 목적으로 저술된 책이 “황금사슬”이었다. 이 책은 예정의 시행이 효력 있는 부르심, 칭의, 성화, 영화의 구원의 서정으로 진행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라고 설명한다.

###### 2) 개인의 양심의 평안과 구원의 확신교회 정립

또한 그는 당시 영국사회의 정치권력들이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 개인의 양심의 평안과 구원의 확신교리를 정립하고자 결의론을 논의하였다. 이 결의론은 퍼킨스로부터 시작되어 17세기 영국신학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특색이 되었다.

론이 중심인 언약신학의 개혁주의 개념을 큰 위로가 되는 교리로 보았다. 개혁주의의 구원론을 채택한 그는 오직 예수와 오직 성경만으로 교리가 그의 성경적 설교의 2가지 근본적인 초석이었다.”

그는 문자적 해석을 하였으며, 믿음의 유비(Analogy of Faith)를 응용한 것이다. 이 윌리는 성경의 불명료한 본문은 전통이나 사색보다는 분명한 본문에 의해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그럼에도 문맥이 요구할 때는 비유적이거나 유추적 언어를 위한 여백을 남겼다. 이러한 윌리엄 퍼킨스의 해석학은 후대에 더욱 많이 모방되었다.

younsuklee@hotmail.com



## 안부모 가정사역



**유효정 목사** (LA비전교회 협력)

### 분노의 조절

질문: 지난달에 아내를 집을 떠나고 두 어린 남매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루는 화가 치밀면서 근처에 달았던 물건은 다 버려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두시간 옷을 한 짐 싸놓고는 침대위의 이불을 다 끌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불현듯 떠오른 생각은, 애들 유전인자의 반은 그 쪽에서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애들을 내다버릴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니 ‘부질없는 짓이구나’ 하고는 쓴웃음을 짓고 말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도 없이 터져 나오는 분노를 견디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답: 분노로 부터 자유를 위해서 먼저 분노하는 대상과 원인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상을 크게 나누어 보면 배우자를 포함한 타인, 자신, 하나님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우선 배우자를 포함한 타인을 향한 분노해결의 열쇠는 용서일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을 향한 용서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용서 못하겠다고 마음을 굳힌다면 주위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뿐 아니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마귀로 틈을 타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스로에 대한 분노가 있을 경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자신을 용서 못할 경우 타인에 대한 용서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용서’란 말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나눠 봅시다. 예를 들어, 결혼의 무너짐에 대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지만 기도응답을 받지 못한 경우 하나님께 원망의 감정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몬즈(Seamands, David)는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용서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뭘 잘못하셔서가 아니라 당신의 감정을 드러내서 그의 사랑과 이해 속에서 풀어야 할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등을 돌리는 것보다는 대화로 풀아가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인하려는 것보다는 섬섬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기도로 말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분노가 풀 때 그 해소책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여 마셨다가 내쉬는 숨조절법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분노의 에너지를 이용해 청소를 하거나 평소 못하던 옷 정리, 걷기 등의 신체활동, 여행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보기,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울거나 소리 질러보기 등의 방법을 권합니다. 그밖에 화가 난 대상에게 편지를 써서 불에 태우거나, 회복모임에 참석하여 신뢰할 만한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은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내며 기도하는 것(시109)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도 나아지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할 것입니다. 분노하면서 술을 마시거나 거친 행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부정적이며 파괴적인 것으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4:23)라는 말씀이 가르치듯이 감당기 힘들더라도 자유의 지를 사용하여 이성적으로 행동하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에서 분노에 사로잡혀 끝내 벗어나지 못한 예로, 사울 왕의 삶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만민이요, 사울은 천천’이라는 노래를 들은 사울왕은 다윗을 향한 시기, 질투로 분노에 찬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가 가졌던 분노의 한 예를 든다면, 도망 다니던 다윗에게 떡을 제공한 제사장 아히멜레에게 복수하고자 다른 제사장 85명과 함께 소, 말, 젓먹이까지 몰살시킨 것입니다(삼상22:18, 19). 다윗을 증오하며 심수년을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자신의 인생을 패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아무리 큰 아픔을 주는 이혼을 했다하더라도 마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분노에서 벗어나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엡4:26, 27).

kdrministry@gmail.com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b>금란교회</b>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구 명동본동 340-(131-231)	<b>든든한교회</b>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b>로마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형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8676(교무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b>새에덴교회</b>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절기예배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8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b>성문교회</b>  담임목사: 황정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58-808)	<b>성실교회</b>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82)2-996-9998, Fax. 9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9 (142-073)	<b>성일교회</b>  담임목사: 윤상욱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토요일은無し)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3동 713-26호
<b>수정교회</b>  담임목사: 이성준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명동본동 416-4(404-270)	<b>승등교회</b>  담임목사: 최형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새벽(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구 인사동 137 번지	<b>시온교회</b>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팩스(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의의동 419-2	<b>신길교회</b>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842-1968, 새벽(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 1동 63-3, (150-051)	<b>신천교회</b>  담임목사: 박형석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2:5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송파구 백석로동 17길 29(잠실동) www.shincheon.org	<b>신촌교회</b>  담임목사: 박노훈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3142-6080, Fax. (82)2-336-4188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www.esincheon.org	<b>안암 제일교회</b>  주일1부예배: 오전 9:2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82)2-2643-4508 서울시 동대문구 약령시로3길 50-1 www.anamjeil.or.kr
<b>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암로 415 www.yanggok.org	<b>왕성교회</b>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b>장위제일교회</b>  담임목사: 신일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강위동 79-12	<b>주안교회</b>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동 294-1(10403-838)	<b>창대교회</b>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	<b>청주주님의교회</b>  담임목사: 최현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서정동 259-12	<b>충신교회</b>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0:00 주일5부예배: 오전 11:30 주일6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67 (140-031)



목회서신



강인국 목사 (미시야나한인교회)

그 많은 자유는 어디로 갔는가?

사람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자유들 중에 신체활동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갖던 동네 가게나 식당에 갈 수 없고, 직장에 갈 수 없고 수많은 개인의 사업장들도 문을 닫았다. 가족과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간단한 식사도 할 수 없고 따뜻한 이 봄 날씨에 여행도 가지 못하고 예배당에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도 드릴 수 없다. 독재국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이 강력한

자유 통제 시대에 자유가 매우 잘 보장된 이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의 자유를 통제하는 이 강력한 힘은 어이없게도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부터 나왔다. 비누물로 씻으면 힘없이 죽어버리는 바이러스,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바이러스로 인하여 그렇게 풍성했던 우리의 자유가 철저히 통제되고 차단되고 말았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

실 때에 사람의 마음에 자유의 지를 심어주셨다. 그래서 사람은 나면서부터 자유를 갈망하고, 자유를 얻기 위해 생애까지 바치며 투쟁해왔다. 미국의 정치가 패트릭 헨리는 영국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명언설을 하였다. 이 말보다 자유의 의미를 더 강력하게 표현할 말이 있을까? 사람에게 있어서 자유의 의미는 실로 죽음과 맞바꿀 정도로 고귀하다. 자유란 가치

의 존엄성은 사람의 생명의 가치보다도 귀중하다. 그래서 인류는 자유와 더 온전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피 흘리기까지 투쟁해왔다.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자유가 철저히 통제되면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다. 첫째, 그동안 우리는 주어진 자유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다. 현대인들은 자유가 주는 풍족함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다. 그래서 주어진 자유를 인식하지도 못했고 감사하지도 못했다.

"Freedom is not free"(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워싱턴DC에 있는 한국전 메모리얼공원 분수대에 새겨져있는 말이다. 실로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과 인권을옹호자들이 피와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범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죽으셨다(롬8:2). 주님

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고귀한 자유의 가치를 성도는 마음 깊이 인식하며 감사하며 그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둘째, 그동안 우리는 주어진 자유로 스스로 왕이 되어서 즐기고 방종하였다. 현대인들은 주어진 자유와 권리로 스스로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왔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갈5:13)고 강력하게 권고한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과 욕망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행하지만, 성도는 스스로 낮아져서 종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타인을 섬기는 성도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셋째, 그동안 우리는 주어진 자유로서 죄악을 선택하고 행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주어진

자유로서 음행,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술 취함과 방탕 등(갈5:19-21)의 길을 선택하고 행한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온통 죄악과 쾌락과 이기심과 다름으로 가득차 있다. 하지만, 성도는 주어진 자유로서 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온유, 절제 등(갈5:22, 23)의 삶을 선택하여서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로써 성도의 본질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는 풍성했던 자유를 빼앗기고 각자의 집에서 유배생활을 하고 있다.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8:2)고 말씀하셨다. 넘치던 풍성했던 자유가 이토록 철저히 차단되고 통제된 때에 성도가 먼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진리 되신 주님께서 이 무서운 재난을 물리쳐 주시고 빼앗긴 자유를 회복시켜주실 것이다.

dik0184@yahoo.com

“청교도 신앙 회복 및 부흥(復興)” (2)

Puritan Restoration and Revival



김경일 목사 (남가주행복찬교회담임)

1. 청교도개혁운동의 기원(起源, Era)과 Background(상)

청교도운동(Puritan Movement)은 서문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영국의 종교개혁운동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청교도란 용어에 대하여 정확하게 정의하기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그 시기와 대상의 선정에 있어서 다양한 견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두고 내려오면서 쓰여진 역사적 개념들이기 때문이다.

Saints)을 가리킨다. 이 교리는 개혁파의 신학적 구원론의 표준이 되어왔으며, 도르트총회 30년 이후에 작성된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1647)의 신학적 기반과 표준이 된다.

청교도운동의 신학적 동기는 스위스의 츠빙글리(Huldrych Zwingli)와 그의 제자 불링거(Heinrich Bullinger)였으나, 점차 칼빈의 신학과 사상을 따르는 자들이 청교도운동을 주도함으로써 칼빈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된다. 즉, 청교도들은 칼빈(John Calvin)과 츠빙글리에 의하여 세워진 개혁주의신학에 근거하여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삶의 현장에 적용하여 기독교적인 가정, 교회, 국가를 세우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청교도들은 영국 종교개혁의 완성의 주역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제임스 헤론(James Heron)은 로마카톨릭교회의 부정과 부패로부터 영국교회를 개혁하고자 하였던 14세기 종교개혁자 위클리프(John Wycliffe)의 개혁운동을 청교도운동의 출발점이라고 본다. 그러나 헤론이 주장한 것처럼 위클리프의 개혁 사상은 청교도와 유사한 면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청교도운동의 기초가 되었다고 하기에 미흡하다. 왜냐하면 청교도운동은 정치적이며 종교적인 운동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셜 내핀(Marshall Knappen)은 그의 저서 "튜더 청교도 사상"(Tudor Puritanism)에서 청교도의 기원을 헨리 8세 때 종교개혁자였던 윌리엄틴데일(William Tyndale)의 사상에서 찾았다(오덕교, 청교도 이야기, pp.11-12).

1)헨리8세(Henry VIII, 1491-1547), 수장령(首長令, Acts of Supremacy) 발표

영국의 청교도 종교개혁은 아이러니(Irony)하게도 카톨릭교도였던 1534년 헨리8세가 지극히 개인적이며 정치적인 이유, 즉 '내가 캐서린과 이혼을 해야 되겠습니다'고 교황

청에 요청을 했을 때, 교황 클레멘트7세(Clement 7)는 반대한다. 이에 반발한 헨리8세가 로마카톨릭교회와 잉글랜드의 교회의 결별을 선언함으로써 시작된다.

헨리8세는 1521년 루터(Martin Luther)의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글을 써서 교황 레오10세로부터 '신앙의 수호자'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철저한 로마카톨릭교회교도였다. 그런 헨리8세가 1534년에 의



폭스의 순교서(1563) 중 크랜머(Thomas Cranmer)의 순교

헨리8세 이혼으로 로마카톨릭과 결별, 인쇄술 발달 등 배경 영국 종교개혁 완성의 주역 청교도, 칼빈 영향력 많이 받아

회의 동의를 얻어 발표한 수장령에 따라, 영국은 국왕을 수반(首班)으로 하는 비 성경적 독립교회화 되었는데 이것이 영국 국교회(성공회)이다.

결과적으로 헨리8세가 로마카톨릭교회와 잉글랜드교회와의 결별로 시작된 로마카톨릭 교회에 대한 유럽의 종교개혁으로 점차 확대되는 시대상황을 맞이한다. 즉, 1517년 루터의 비텐베르크교회 정문에 붙인 95개조 항의문, 면죄부 판매로 촉발된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전 유럽에 종교개혁의 기운이 전광 화석처럼 번져나갔다.

특히 1544년 구텐베르크가 독일 마인츠에서 인쇄술을 발명하고 유럽 종교개혁의 기반이 되어 15세기 후반과 16세기 초, 비판적인 글이 대거 출판되고 평신도들도 교회를 비판할 정도에 이르게 된다(Lewis W. Spitz., 종교개혁사, p.221). 그 반응으로 로마카톨릭교회의 세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토마스 후커(Thomas Hooker)는 헨리8세가 "교황의 머리

는 잘랐지만 그의 왕국 안에 개혁자들이 남겨둔 것으로부터 청교도운동이 시작되었다" 즉, 윌리엄 틴데일(Tyndale)과 케임브리지의 종교개혁자 토마스 빌니(Thomas Bilny)를 통해 종교개혁사상이 영국에 토착화되면서 청교도운동이 싹을 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헨리8세는 로마카톨릭교회로 돌아가려는 자를 반역자로 처벌하였다.

또한 헨리8세는 1538년 크

랜리8세와 캐서린의 딸 스페인 공주 메리가 즉위한다. 메리는 반 종교개혁운동을 지지하던 스페인의 필립2세(Philip 2)와 결혼하여 로마카톨릭교회를 재건(再建)하고자 하였다. 그의 종교정책에 반대(反對)하는 종교개혁자 존 후퍼, 존 브래드포(John Bradford), 휴 라티머(Hugh Latimer), 런던의 주교 니콜라스 리들리(Nicholas Ridley)와 케임브리지 대주교 토마스 크랜머 등 개혁자들이 스미스 필드(Smith Field) 화형장에서 순교(殉教)를 당했다.

크랜머를 비롯한 많은 사람은 프로테스탄트라는 이유로 순교자처럼 죽어갔다. 스미스 필드 화형장에서 희생된 자가 무려 286명이나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피의 메리'라 불리게 되었다. 이것은 스페인, 네덜란드에서 처형된 수천 명에 비교하면 온건한 편이었다. 또한 피의 메리보다는 그녀는 차라리 비극의 여왕으로 보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G.R.Elton, The Reformation in England, p.242). 다른 사람들은 지하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스위스, 독일 등지의 유럽대륙으로 8백 여명이 망명하였다(De Lamar Jensen, Reformation Europe, p.161).

특히 강요와 회유공작을 받은 토머스 크랜머 대주교는 견딜 수 없는 정신적 압박에 시달린 끝에 개신교 믿음을 버린다는 믿음철회서에서 서명을 하였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개신교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순교하였는데 순교적인, 개신교 신앙을 저버린 것을 후회하며 믿음철회서에서 명한 오른손이 가장 먼저 불에 타야 한다며, "나는 로마교회를 거부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적이며, 적그리스도이며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입니다"라 말하고 화형대에서 최후를 맞았다.

이렇게 메리여왕의 박해가 계속되자 800여명의 개혁자들은 스위스, 독일, 등지 유럽 대륙으로 망명한다. 그들은 취히히 바젤 제네바에서 개혁파 목사들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면서 피난민 교회를 세웠고, 하인리히 불링거(Heinrich Bullinger)와 존 칼빈과 같은 개혁자와 교제함으로써 신학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다.

특히, 존 나스를 비롯한 230여명의 개혁자들은 제네바로 가서 칼빈의 도움으로 피난민 교회를 세우고, 에정론 등 칼빈의 영향이 드러나는 신앙고백을 작성하여 신앙의 표준삼았다(오덕교, 청교도 이야기, p.16).

특히, 존 나스를 비롯한 230여명의 개혁자들은 제네바로 가서 칼빈의 도움으로 피난민 교회를 세우고, 에정론 등 칼빈의 영향이 드러나는 신앙고백을 작성하여 신앙의 표준삼았다(오덕교, 청교도 이야기, p.16).

특히, 존 나스를 비롯한 230여명의 개혁자들은 제네바로 가서 칼빈의 도움으로 피난민 교회를 세우고, 에정론 등 칼빈의 영향이 드러나는 신앙고백을 작성하여 신앙의 표준삼았다(오덕교, 청교도 이야기, p.16).

특히, 존 나스를 비롯한 230여명의 개혁자들은 제네바로 가서 칼빈의 도움으로 피난민 교회를 세우고, 에정론 등 칼빈의 영향이 드러나는 신앙고백을 작성하여 신앙의 표준삼았다(오덕교, 청교도 이야기, p.16).

특히, 존 나스를 비롯한 230여명의 개혁자들은 제네바로 가서 칼빈의 도움으로 피난민 교회를 세우고, 에정론 등 칼빈의 영향이 드러나는 신앙고백을 작성하여 신앙의 표준삼았다(오덕교, 청교도 이야기, p.16).

특히, 존 나스를 비롯한 230여명의 개혁자들은 제네바로 가서 칼빈의 도움으로 피난민 교회를 세우고, 에정론 등 칼빈의 영향이 드러나는 신앙고백을 작성하여 신앙의 표준삼았다(오덕교, 청교도 이야기, p.16).

특히, 존 나스를 비롯한 230여명의 개혁자들은 제네바로 가서 칼빈의 도움으로 피난민 교회를 세우고, 에정론 등 칼빈의 영향이 드러나는 신앙고백을 작성하여 신앙의 표준삼았다(오덕교, 청교도 이야기, p.16).

2020 미국 청교도 이주 400년 기념 특집

은 당대 최고의 개신교 교사들의 지도를 받으며 자랐다.

영국교회에 칼빈의 개혁사상이 급속도로 유입되어 예배시에 성직자들의 복장이 간소화되고 성직자의 결혼이 허용되었으며 교회 안의 우상들이 제거되었다. 특히 케임브리지의 대주교인 크랜머의 도움으로 미사를 위한 희생제단이 개혁되고, 성찬식 때에 일반 평신도들에게 떡과 포도주도 함께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교회개혁을 주도한 실재적 인물은 케임브리지 대주교였던 토마스 크랜머(Thomas Cranmer)였다. 그는 확신 있는 개신교도였고 영국교회를 개혁하는데 전심전력하였다.

특히 크랜머는 칼빈과 루터의 후계자 멜랑히톤(Philip Melancthon) 등 대륙의 개혁자들과 친밀하게 지냈으며, 마틴 부처(Martin Bucer), 피키노(Ficino)와 같은 대륙의 개혁자들을 초청하여 종교개혁운동을 전개하였다.

크랜머의 개혁운동으로 영국교회는 유럽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들 중의 하나로 변모하였다. 목회자의 결혼이 허락되었고, 교회에서 우상이 제거되었다.

종교개혁사상이 드러나는 공동기도서(Book of Common

Prayer)가 1549년 출판되었다. 1552년에는 진일보한 제2 기도서가 나타났으며, 성화(聖火)가 교회에서 사라졌고, 제단 대신 성찬상이 등장하였다. 또한 같은 해에 칼빈(John Calvin)의 신학사상이 가미된 42개조 신조가 출판되어, 영국인들의 신앙지침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헨리8세를 피하여 대륙에 있다가 1549년에 귀국한 후퍼(John Hooper)는 영국교회 안에 남아 있는 로마카톨릭교회의 잔재들을 속히 없앨 것을 촉구하는 등, 급진적인 개혁을 요구했다. 특히 후퍼는 1550년 성직자(聖職者) 복장(服裝)을 착용하는 것을 로마 교황청의 대표적인 잔재(殘滓)로 보아 이를 비판하여 복장 논쟁을 일으켰다(오덕교, 청교도 이야기, pp.14-15).

3)피(Bloody)의 메리(Mary, 1553-1558)의 반 개혁운동과 숙청(Cleanup)

1553년 에드워드가 16세 어린 나이에 결핵으로 사망 후,

메리(Mary, 1553-1558)의 반 개혁운동과 숙청(Cleanup) 1553년 에드워드가 16세 어린 나이에 결핵으로 사망 후,

메리(Mary, 1553-1558)의 반 개혁운동과 숙청(Cleanup) 1553년 에드워드

kimjoyh@gmail.com

# 코로나19사태 어려움 이기자

## 남가주한인 교계, 단체 적극지원 나서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과 취약계층을 위해 남가주 지역 한인교회와 단체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동양선교교회(담임 김지훈 목사)는 지난 7일 할리우드 차병원을 방문해 의료진 마스크 3천장, 의료용 장갑 5천매, 방호복 9백벌 등 모두 1만8천 달러 상당의 의료물품을 전달했으며 향후 방호복 9백벌을 추가로 전달할 예정이다.

동교회는 그동안 경제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한인사회 가정들과 독거노인들을 방문해 생활용품과 음식박스, 위로금을 전달했고, 쌀 100포대를 기증받아 지역교회와 이웃들에게 나누기도 했다.

△구세군나성한인교회(담임 이주철 사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에 대한 식료품 제공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저소득층을 위해 식료품 제공을 해왔지만 그 대상을 모든 지역사회의 확대하기로 했다.

식료품 배급 시간은 매주 월요일

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배급 장소는 933 S. Hoover St. LA이며 식료품이 필요한 가정은 ID를 가지고 가면 된다.

△미셸 스틸 박 오렌지카운티(OC) 수퍼바이저 위원장은 비영리재단 강드림재단과 함께 지난 7일 OC세리프를 방문해 KN95 마스크 2000개를 전달했다. 강드림재단은 한인 의류업체 옛지마인의 강장근 회장이 설립한 비영리재단이다.

△남가주한인사협회(회장 케빈 김)는 지난 5일 KN95 마스크 1000장을 최석호 거주 하원의원에게 전달했다. 협회가 제공한 KN95 마스크 1000장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회 취약계층 돕기 마스크 도네이션 캠페인을 벌여 마련된 것이며 최석호 의원은 너싱홈, 노인회, 모빌홈 거주 시니어 등에게 이를 기부하게 된다.

△한편 LA한인상공회의소, 한남체인, 허브 웨스 LA 10지구 시의원 이 공동으로 재정난에 빠진 한

인 가정에 '식료품 500상자'를 무료로 배포하는 '코로나바이러스 극복 한사랑 나누기' 캠페인을 13일 오후 2시에 남가주세누리교회(담

임 박성근 목사) 앞에서 열었다. 캠페인은 2만2500달러 상당의 식료품 500상자(선착순)를 서류미 비자들과 저소득층 가정들에게 나눠줬으며 식료품 한 상자는 쌀, 햇반, 햄, 김, 라면, 두부, 과자류 등 박스당 약 45달러 상당의 제품으로 구성됐다.

(정리: 박준호 기자)

#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 제69회 국가 기도의 날 한인교계 동참

(1면에서 계속)

송정명 목사는 “코로나19로 현장에 모일 수 없지만 방송을 시청하는 현장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달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을 듣고 응답해주시길”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순무브먼트 늘푸른계절 팀의 찬양(인도 박종술 목사)과 강태광 목사(월드웨어USA 대표) 인도로 송정명 목사 환영 인사, 민승기 목사(미주한기총연합회장) 대표기도, 문지원 아나운서(미주복음방송) 성경봉독, 한기홍 목사 말씀선포로 이어졌다.

설교에 이어 열린 기도회는 진유철 목사 사회로 △회개운동과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정기정 목사(샘물교회), 김경진 목사(기쁜우리교회), 김은목 목사(평화교회), 이호우 목사(좋은소식교회)가 각각 소제목 기도 강사로 나섰다.

둘째 기도는 샘신 목사(오직 예수선교회) 인도로 △미국 지도자들을 위해, 김기동 목사(세리토스총만교회), 유수연 교육위원(ABC통합교육국), 장경일 목사(사우스베이 목사회장), 그리고 오윤태 목사(순무브먼트 대표)가 소제목 기도 강사로 나섰다.

셋째 기도는 강순영 목사(자마대표) 인도로 △미국 청교도 신앙 회복운동과 부흥을 위해서, 황의정 목사(둘로스선교회), 정우성 목사(남가주광명교회), 김철민 장로(CMF가정선교회 대표) 등이 나서서 뜨겁게 기도했다.

넷째 기도는 민종기 목사(총현선교회) 인도로 △한국과 한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박상목 목사(OC교협 회장), 김영구 목사(세기모 서부지회장), 김정한 선교사(Son Ministry 대표), 피세원 목사(오렌지한인교회 담임)가 각각 기도를 인도했다.

기도회 중에 찬양인도도 있었고, 뉴저지교협회장 장동신 목사, 시카고교협회장 김관호 목사를 연결해 타 지역 연합기도회 상황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기도회는 신승훈 목사(주님의영광교회) 축도로 마쳤다.

### 뉴욕

뉴욕지역은 교협 주최로 오전 9시부터 2시간에 걸쳐 회장 양민석 목사가 시무하는 뉴욕 그레이트네교회에서 진행됐다.

양민석 목사는 “국가 기도의 날은 1952년 트루먼 대통령 때부터 시작돼 1988년 레이건 대통령 때 제정돼 진행해오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지난 3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앞당겨 국가 기도회를 열었다”며 “이번 기도회에 한인교회들이 참여해 온 세계교회를 깨우고 온 땅을 새롭게 세워가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코로나바이러스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란다”고 환영인사를 했다.

1부 예배는 이창중 목사(총무) 사회로 박진수 목사(뉴욕 그레이트네교회) 찬양후 기도 순서로 장로(부회장), 성경봉독 김영호 장로(이사장), 특주 유진웅 집사, 설교 송병기 목사(증경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송병기 목사(뉴욕목양장로교회 원로)는 “여호와께 돌아가자”(호6:1-3)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기도의 증거자들로 링컨과 이승만 등을 언급하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낙망치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기도에 응답받는 모두가 되자”고 전했다.

2부 기도회는 △회개와 코로나19 퇴치와 극복을 위해/박마이클 목사(대내외사업부과총괄) △미국 지도자와 이민사회를 위해/조원태 목사(이민자보호교회협의회) △한국 지도자와 북한을 위해/이기용 목사(특별협력위원) △뉴욕교계의 지도자를 위해/송윤섭 장로(장로연합회장) △청교도 미국이주 400주년 및 신앙회복을 위해/박이스라엘 목사(뉴욕목회자기도회장) △의료진들을 위해/김신영 목사(미주한인여목회장) △고난당하는 분들을 위해/안경순 목사(글로벌뉴욕여목회장) 제목으로 진행됐다.

이어 광고 문정웅 목사(서기), 축도 이준성 목사(뉴욕목사회장) 순서로 마쳤다.

한편 뉴욕교협(회장 양민석 목사)은 코로나19로 인해 렌트비와 생활이 어려운 교회 9교회를 지원했으며 이를 위해 퀸즈한인교회(김바나바 목사)와 뉴퍼런티어교회(류인현 목사)가 후원금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외에 프라미스교회(허연행 목사) 등 10개 교회와 이사회, 증경회장 10명이 후원금을 보냈다고 보고했다.

또 교협은 2개 일간지와 공동으로 대구 경북 돕기 성금을 20,650달러 모금했으며 25개 교회와 단체, 개인이 참여했다고 밝히고 2개 회사로부터 기증받은 마스크 3700개를 57개 교회와 요양병원 단체 3곳에 보냈다고 알렸다.

### 뉴저지

뉴저지교협은 설교와 기도자들의 기도를 녹화 편집해 당일 예배장소인 산돌교회(김대호 목사)에 참석한 순서자들의 기도와 함께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영상은 CTS뉴욕방송이 담당했다.

노란관 목사(찬양사역자) 특송 후 시작된 1부 예배는 부회장 최준호 목사 인도로 찬양이준구 목사, 기도 배광수 장로, 성경봉독 김대호 목사, 설교 고명진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 호산나대회 강사) 순서로 진행됐다.

고명진 목사는 “포로생활 중의 신앙”(시137:1-9)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본문은 바벨론 포로생활 중의 유대백성들이 바벨론 강에서 불렀던 노래로 하나님께 제사(예배)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산 시온을 생각하며 통곡하는 장면인데 요즘 우리 상황과 비슷하다”고 말하고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뿐이니 이 통곡의 기도가 현실로 아름답게 응답될 때까지 믿음으로 나가자”로 격려했다.

회장 장동신 목사는 2부 기도회를 인도하며 남가주교협 연합기도회와 연계를 언급하며 ‘Heal Our Lord’ 주제로 5개 제목의 기도회를 진행한다 고 소개하고 예배장소에 참석한 기도인도자 홍인석 목사(△회개와 회복을 위해), 박인갑

### 기도/칼럼

#### 후타코에



박현숙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서재의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밥 소르기의 “내 영이 마르지 않는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찾아가는 여행”이라는 부제가 붙었습니다. 예전에 감동하며 읽었던 터라, 밑줄 친 곳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순종’의 단어 뜻풀이에 눈길이 멈추었습니다. 신약에서 순종을 의미하는 ‘후타코에’는 아래를 뜻하는 헬라어 ‘후포’와 듣는다는 뜻인 ‘아코우오’가 더해진 합성어입니다. 순종은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순종은 선한 일을 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발 앞에 앉아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주님 발아래 앉아 겸손히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누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시작해야 합니다. “주여, 주님의 뜻이 내 소원이 되도록 가르치소서.” 모든 일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교만하면 안 들립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목을 끈게 세우고 듣기 때문입니다. 주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겸손에서, 불순종은 교만에서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귀를 막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소서.”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귀를 막으시거나 잠잠하시면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죽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주의 음성을 사모했습니다. 자신을 낮추며 듣는 것에 온힘을 쏟았습니다.

때로 너무 힘들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속히 주님 발아래로 가서 엎드려야 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순종의 자리, ‘후타코에’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라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신33:3).

bible66@gmail.com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 식료품 지급을 실시하는 구세군나성교회

# 온라인 어린이 무료 체험교실 오픈

## 한인가정상담소, LA 자연사박물관과 함께

한인가정상담소가 LA 자연사박물관(Natural History Museum of Los Angeles)과 함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온라인 어린이 체험교실을 연다.



한인가정상담소 주최 온라인어린이 무료체험교실 포스터

이번 온라인 어린이 무료 체험교실은 오는 18일(월) 오후 3시부터 30분간 6세부터 9세 아동들을 위한 ‘주니어과학자’ 프로그램을, 19일(화) 오후 3시부터 30분간 3세부터 5세 유아들을 위한 ‘크리터클럽’을 ‘줌(Zoom)’을 통해 무료 제공할 예정이다.

‘주니어과학자’에서는 LA 자연사박물관의 고생물학자가 아기 공룡과 엄마 공룡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어떻게 화석 공룡의 알을 탐구하는지 배운다. ‘크리터클럽’에서는 거북이 (토르토이스, Tortoises)들이 네 다리를 이용해 어떻게 집을 짓고 아기 거북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이번 어린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외출을 자제하고 아이들과 집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가족을 위해 마련됐다.

LA 자연사박물관의 크리스티나 카스텔리(Christina Kastely)

퍼블릭 프로그램 매니저는 “코로나19로 박물관 직접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린이들이 LA 자연사박물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온라인 체험교육을 제공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한인가정상담소 카니정조 소장은 “코로나19로 집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그동안 육아로 힘들었을 부모님들에게는 잠시나마 휴식을 줄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한인사회에 좋은 체험학습을 선사해줄 LA 자연사박물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참여는 연령에 맞게 누구나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https://tinyurl.com/kfamnm>에서 할 수 있다. 신청자에 한해 줌 링크를 발송하며 수업은 영어로 진행된다. 자세한 문의로는 [mlee@kfamilia.org](mailto:mlee@kfamilia.org) 하면 된다.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 케이타운호프, 오미리클 정신건강 힐링세미나

비영리단체 케이타운호프(Ktownhope 회장 박소연)가 월례 행사인 ‘오미리클 정신건강 힐링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오는 17일(토)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개최한다.

케이타운호프 측은 “지난 2월 세미나를 마지막으로 코로나사태가 심화돼 열지 못했던 오픈라인 세미나를 17일부터 재개한다”며 “세미나는 사뮈얼 성경오부부나 가족 등으로 이뤄진 10팀만 참

가시킨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발생한 가족간의 갈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소통방법을 제시하게 된다. 주강사인 성소영 임상심리학 박사가 ‘강의 및 질의응답(Q&A) 시간’을 마련해 zoom을 이용한 웹이나 방식이다.

▲문의: (213) 435-6622 (기사제공: 케이타운호프)

## 케리그마남성중창단 찬양 무료배포

케리그마남성중창단(단장 김요한)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찬양을 녹화해 무료 배포에 나섰다. 온라인예배로 찬양이 필요한 교회들은 인터넷 원드라이브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본 예배 영상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다. ‘참 좋은 주님’, ‘매일 스치는 사람들’, ‘고백’, ‘그의 빛 안에 살면’,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등 7곡이다.

▲문의: (718)702-5688



뉴욕교협이 주관한 기도회에서 회장 양민석 목사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뉴저지교협 국가의 날 기도회에서 회장 장동신 목사와 홍인석, 박인갑 목사(왼쪽부터)가 대화하고 있다.

목사(△뉴저지지역을 위해)와 지역교회 현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또 유병우 목사(△코로나19 퇴치와 극복)와 양춘길 목사(△미국을 위해), 김중국 목사(△한국을 위해)의 녹화장소에 찾아가 현장에 합류했다.

5개 제목의 기도회 인도한 5명의 목사들은 3, 4명의 목사들을 세워 같은 기도제목아래

소규모의 기도회를 인도해 총 30여명의 목사들이 참여한 셈이 됐다.

광고는 총무 육민호 목사가 뉴저지교협 주소록 발간을 알리며 배송하겠다고 밝히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후원을 부탁했다.

기도회는 황의춘 목사 축도로 마쳤다. (취재부)

## 휴스턴 예닮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휴스턴 예닮장로교회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정규신학대학을 졸업한 5년이상 목회경력이 있는 목회자 중 PCA소속이거나 가입 가능한 자로 이중언어(한국어, 영어)가 가능하고 5년이상 미국내에 거주한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이다. 제출서류는 이력서(가족 소개서 및 노회소속 증명서, 신앙고백서 및 목회 소견서, 학부 및 신대원(MDiv)졸업 증명서, 2분 목사님의 추천서(추천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포함), 최근 6개월 이내 설교 동영상 2회분 파일 혹은



웹사이트 링크이며 추가서류가 요청될수 있다. 서류를 보낼곳은 휴스턴 예닮장로교회 청빙위원회(19946 Saums Rd, KATY, TX 77449)이며 오는 30일까지 보내면 된다. ▲문의: (832)321-5035

# 코로나 팬더믹! 귀하의 교회는 안녕하십니까?

## -COVID-19 이후 교회의 성장전략(상)



이희갑 목사 (Azusa Pacific University 교수)

### 들어가는 말

온 세계가 코로나 공포에 떨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엄청나게 늘어나는 확진자들, 사망자를 숫자에 우리는 공포감을 느낀다. 이를 통해 우리는 똑똑히 알았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사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물론 이전에도 위기는 있었다. 2001년 911사태, 쓰나미, 허리케인 카트리나 등등... 그러나 코로나는 이전의 위기와는 그 양과 질적인 면에서 매우 다르다. 14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흑사병은 4명중 한 명의 생명을 앗아갔지만 그러나 그것을 유럽의 특정 지역에 국한된 비극이었다. 다른 많은 천재지변이 그 이전에 많이 있었지만 그것은 원인을 곧 알 수 있었고 발생지역도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역사상 이런 위험스러운 일은 일찍이 없었다.

코로나는 전 세계에 모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 그 코로나의 여파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쳤고 또 미칠 것이다. 하나님 역사는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교회는? 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 코로나바이러스와 하나님의 의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번 코로나사태를 말세의 징후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는 선지자 아모스가 우리에게 일깨워준 교훈이기도 하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암3:6). 과연 코로나가 하나님

의 우리의 죄와 불순종에 대한 심판인가? 확실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존 파이퍼 목사는 최근에 발간된 그의 책 Coronavirus and Christ에서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계신다고 요약하였다. 첫째, 다른 재난이 닥쳤을 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바이러스의 발병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영적인 죄의 추악함과 그 끔찍한 도덕적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 주신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하나님의 경종이다. 나아가, 이는 우리 모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에 비추어 삶

는 크리스천들이 처한 영적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라는데 동의하고 있으며, 똑같은 영적 패러다임에 매몰되어 하나님을 믿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훈계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The



일 기도한다고 응답했다. 37% 미국인들은 지난 몇 주간 동안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고 고백하고 있다.

똑같은 조사결과가 바나리서치(Barna Research) 자료에서도 나타난다. 3월말 조사에서 19% 미국인들은 그들의 신앙이 이전보다 영적으로 훨씬

## 코로나 위기,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는 강력한 훈계 영성훈련 기회 활용 · 새로운 형태 예배와 목회방식

을 재정비하라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가르침이다.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는 자기 연민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와 기쁨과 사랑으로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부르심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현실에서 안주하고 있는 전 세계 신자들이 일깨워 새롭고 혁신적인 일을 하게 하시고 복음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그러기에 우리는 코로나사태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잠에 취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는 나팔소리요, 우리를 일깨우시는 다급한 하나님의 목소리이다. 사실 미국의 대다수 목회자들 역시 코로나사태

Christian Post 4월 27일자).

### 코로나 사태가 교회에 끼친 영향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이다. 코로나사태로 인해 수많은 희생과 대가가 지불되고 있지만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기독교인들에게 새로운 부흥의 기회를 분명하게 제공해주고 있다.

첫째, 코로나사태는 기독교인들은 위기를 영성훈련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퓨리서치(Pew Research) 최근 조사(3월 30일)에 의하면 코로나 때문에 미국 기독교인들은 더 많이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6% 미국인들이 하나님께서 코로나로부터 보호해주시길 위해 매

터 성숙해졌으며 더 깊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한 선교단체는 코로나사태 이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비율이 16% 늘어났다는 보도하고 있다(Christian Today 4월 7일).

결국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위기 속에 강화되는 법, 코로나는 기독교인들에게 영적 부흥의 단초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데서 부흥 긍정적이다. 역사를 보면 가장 척박한 환경 속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볼 때 이번 코로나사태도 예외가 아니다.

둘째, 코로나사태는 새로운 형태의 예배와 목회방식을 개척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로 하여금 직접 만나 예배드릴 수 없도록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크리스천들은 보

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오고 있다. 이미 라디오, TV, Podcast, Facebook, Instagram을 이용한 예배, Zoom/Google hangout/Skype 등을 통한 소그룹 모임, 상담, 기도 모임 등은 현재 매우 일상적인 교회 활동의 예가 되고 있다.

교회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예배당 빈 좌석에 성도들의 사진을 붙여놓고 목회자들이 예배를 인도한 후 온라인으로 송출하기도 한다. 넓은 광장에서 사람들이 거리를 둔 상태로 함께 모여 기도하며 찬양을 드린다. 또 목회자가 직접 교인 주거지에 찾아가 거리에서 말씀을 전하면 그 지역에서 19% 미국인들은 그들의 신앙이 이전보다 영적으로 훨씬

특정시간에 교인들은 온라인상에서 함께 모여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새들백교회에서는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에 목회자가 성도들을 Zoom에 초대하여 함께 예배를 드린다. 주일 온라인 예배는 코로나사태가 본격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더불어 Stay-at-home order가 이어지자 많은 교회에서 적극 실시되었다.

있는 태도이다. 온라인 예배의 성공은 그 예배의 참석여부보다는 그 예배 이후의 후속활동, 예를 들면 온라인 구역모임, 온라인 기도회, 온라인 헌금 등과 연계되어야 하고 교회도 이러한 후속 활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초점을 모아야 한다.

코로나사태가 교회에 미친 영향중에 분명 우려할 것도 있다. 그것은 헌금의 감소이다. 온라인 예배 실시 이후 64% 교회가 헌금이 감소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이중 28% 교회는 예배 헌금이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Barna Research 4월 7일 자료). 코로나바이러스사태로 교회재정의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온라인 헌금이 대세이지만(미국교회의 약 60% 헌금이 온라인으로 드려짐), 코로나사태로 실업률이 32%로 늘어났고 4700만명이 직장을 잃었다는 뉴스가 바로 직접적인 교회 재정의 어려움의 이유이다.

재정적 문제는 특히 미국내 한인교회에게는 치명적이다. 코로나가 몰고 온 경제적 어려움도 한 이유이기도 하고, 아직도 예배시간에 헌금을 드리는 데 익숙한 한국 크리스천들의 문화는 온라인 헌금에 소극적인 것도 그 이유이다. 향후 한인교회에서 온라인 헌금 독려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회의 재정적 어려움은 특히 규모가 작은 교회에 심각하게 다가올 것이다. 크리스천포스트(The Christian Post)는 이토 이해 교회의 축소 혹은 폐쇄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4월 27일자). 처음 코로나사태가 지속되었을 때 미국 목회자 15%가 교회 문을 닫을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였다고 응답하고 있다.

교회재정의 축소는 그 해결을 위해 미국 중/소규모 교회들은 두 가지 방향으로 그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첫째는 목회자가 다른 직업을 갖거나 혹은 파트타임으로 전환하고 있는 경우이다. 둘째는 재정난에 봉착한 소규모 교회가 다른 교회에 합병되거나(adopting) 혹은 큰 교회의 도움을 받거나 다른 교파에 소속함으로써 재정적인 도움을 받는 경우(fostering)이다.

hlee0414@gmail.com

<h3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2 style="text-align: center;">서부(CA)교회안내</h2>					
<b>나성영락교회</b> 담임목사 :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www.youngnak.org	<b>나성제일교회</b> 담임목사 : 차성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 배 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213)388-7011 /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b>나침반교회</b>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 일 화 교: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토요일연합예배: 오전 6:30 토요일한국학교: 오전 9:00 Tel: (562)691-0691 / Fax: (562)691-0698 www.nachimban.org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b>남가주든든한교회</b>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주 일 화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213)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b>남가주사랑의교회</b>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7:20 주일 2부 예배: 오전 9:2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20 주 일 화 교: 오전 11:20 영어권(월-금): 오전 11:20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b>대흥장로교회</b>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새벽 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 요 예배: 오후 7:30 Tel: (310)719-2244 /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b>디아스포라선교회</b>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전화 팩스 상담) /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b>머무는교회</b> 담임목사 : 김문수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모임: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213)909-2820 www.staychurch.org 690 Wilshire Pl, Los Angeles, CA 90005 (우일예배 장소) Office: 106 S Hobart Bl, Los Angeles, CA 90004 (수요모임 장소)	<b>미주양곡교회</b>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b>미주평안교회</b>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 오후 7:30 Tel: (213)381-2202, www.mjc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b>빛과 소금의 교회</b>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5:45(월-금)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5401 S. Western Ave Lomita Ca. 90717	<b>복음장로교회</b> 담임목사 :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매월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b>베델한인교회</b>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일일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bethele@kcc.org / www.kc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b>세계소망교회</b>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토) Tel: (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b>열매교회</b>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 요 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b>엘피스가족원</b> 원장: 박은송 목사 (사)복음화전선교회 협동목사 성서사역: (월-금) 오전 9:45-10:30분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사역: 1. 복음화전선 2. 교회성장도 3. 가정사역 4. 네트워킹 사역 http://www.elpisfamily.org / Tel: (213) 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b>은혜한인교회</b>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사제기도회: 365일 24시간 모은 Tel: (714)446-6200, www.gracemc.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b>주님세운교회</b>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대행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www.gccj.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b>좋은마을교회</b>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b>코너스톤 교회</b>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310)530-4040(CH), www.cornestonstone.org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b>토렌스조은교회</b>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분당) E M 예 배 : 오전 9:45(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분당) KM찬양예배: 오후 2:00(분당) 수 요 예 배 : 오후 8:00(분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분당) Tel: 310-370-5500, www.torrancegc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b>핼(PIM)선교회, 교회</b> 담임목사 : 이훈우 주일영어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헌어예배: 오후 1:00 교육부: 오전 11:00 Tel: 213 924-3340, pmission1004@gmail.com 2533 Honolulu Ave # 4 Montrose, CA 91020	<b>하늘소망교회</b> 담임목사 : 김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금요예배: 오전 6:30(토) 수요모임: "성령이 임하여" 오전 9:30 오후 7:00 Tel: (213)2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 생활 방역 전환 후 첫 주일 현장

“우리는 차에서 예배드려야겠다.” 서울 강남구 강남중앙침례교회(최병락 목사)에 출석하는 김지은(37)씨는 10일 교회 앞에서 초등학교 1학년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 모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두 달 넘게 온라인예배만 드리다 오랜만에 교회를 찾았다. 하지만 초등학교 생은 감염예방을 위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않는 걸 원칙으로 했다는 교회 측 얘기를 듣고 발길을 돌렸다.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생활방역 즉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후 첫 주일인 이날 대부분의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와 유사한 방역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최근 이태원클럽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터라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았다. 성도들은 손 소독, 발열 체크를 하고 QR코드나 문자메시지로 등록 교인인지 확인한 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예배당에 들어가선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스티커가 부착된 좌석에만 앉을 수 있었다. 교회는 예배 전후로 예배당을 소독했다. 이날 1-5부 예배엔 총 1100여명이 참석해 지난 3일보다 300여명 늘었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는 ‘안전좌석’을 활용했

회학교를 비롯한 개별부서 예배 정상화의 날로 선포하고 10일 가족축제주일인 ‘보랏빛 사랑주일’ 예배를 드렸다. 성도들은 정부가 제시한 7대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키며 예배당을 채웠다.

서울 연동교회(김주용 목사) 교인들도 분당 앞에 길게 줄을 서 발열 검사와 문진표

## 마스크에 거리두기...주일에배 방역 빈틈 없었다

다. 교구별로 미리 출입증을 받은 성도들은 마스크를 쓴 채 대성전 입구에 마련된 발열체크기를 통과한 뒤 예배당 안에 들어가 1만 2000여 좌석 중 안전좌석 스티커가 부착된 좌석에 앉았다. 예배는 실시간 온라인으로 송출됐다.

경기도 용인 새에덴교회(소강석 목사)는 오는 17일을 교

를 작성한 뒤 예배당에 들어갔다. 검사를 마친 교인들은 마스크를 쓴 채 정해진 자리에 앉았다.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는 이날부터 현장예배로 전환했지만, 감염 고위험군이나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중인 성도는 온라인 생중계 예배에 참여하도록 공지했다. 경기도

성남 우리들교회(김양재 목사)와 서울 여의도침례교회(국명호 목사)는 온라인 예배를 이어갔다.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면 현장예배 참석자가 늘어 방역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는 기우에 그쳤다. 교회들은 현장예배 참석자 수를 제한하고 고령자 어린이 임신부 만 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성도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도록 했다.

생활방역 전환으로 사역 정

화를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연동교회는 목회자 심방, 강남중앙침례교회는 새벽기도와 수요예배를 재개한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지난주부터 새벽기도와 수요예배를 드리고 있다. 새에덴교회는 24일 모든 성도와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는 ‘슈퍼 선데이’를 진행할 예정이다.

## 5월 31일 ‘예배 회복의 날’로 선언

### 한교총, ‘코로나 이후’ 교계 대책 논의

한국교회가 오는 31일을 ‘한국교회 예배회복의 날’, 일명 ‘슈퍼선데이’로 지정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종식 이후를 준비하기로 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김태영, 부대표 문수석 목사)은 7일 대전 유성구 계룡스파텔에서 대표회장 및 상임회장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의했다. 한교총 사회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소강석(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부총회장) 목사는 이날 ‘포스트 코로나19’ 대책의 하나로 오는 24일을 ‘한국교회 예배회복의 날’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사일이 촉박하다는 일부 의견이 제기됐고, 결국 논의 끝에 한 주 미룬 31일 진행하기로 했다.

소 목사는 “한국교회는 예고 없이 닦진 코로나19 사태로 아

무런 준비 없이 국민 여론과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예배중지’라는 조유의 사태를 맞이했다”면서 “전염병 사태가 진정돼가는 이때 한국교회에는 코로나19 사태를 종식하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한교총 주관으로 ‘한국교회 예배회복의 날’을 시행하자”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교계에선 ‘사태가 해결돼도 한국교회가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위기가 속어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길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특정한 날을 정해 한국교회 성도들이 코로나19로 위축된 마음을 극

복하고 교회에 돌아올 수 있는 장을 만들자는 제안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소 목사는 ‘한국교회 예배회복의 날’ 제정과 시행이 한국교회와 성도의 마음을 응집하는 계기가 되리란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봤다. 한국교회의 하나 된 메시지를 사회에 전달하는 한편, 향후 있을지 모를 정부와 국회의 교회 생태계 위협 움직임에 대해 단호한 의지를 전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봤다.

이날 회의에선 한국교회가 감염병 확산 사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발생 전과 후로 나눠 맞춤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감염병 발생 시 한교총과 같은 연합기관 차원에서 TF를 구성해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에선 한국교회가 위기상황을 신속히 판단해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나온 이야기다.

## “교회는 더 엄격히 지켜야”

### 생활속 거리두기 첫날...기독교의료인 한목소리 당부

정부가 6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했지만, 기독교 의료진들은 “교회가 세상의 격정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사회보다 더 엄격히 방역을 지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광주에서 안과병원을 운영하는 서정성 원장은 이날 국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교회는 세상보다 방역에 더 철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 원장은 지난 2월 대구에서 ‘31번 확진자’가 나오자 신천지 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급증했을 때 ‘달빛의료지원단’ 중 한 명으로 대구에 갔다. 2월 28일부터 2주간 코로나19 대구 지역 거점 병

원인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선별진료소와 격리병동을 오가며 환자들을 치료했다. 하루 700~800명씩 확진자가 폭증할 때는 공포도 느꼈다. 서 원장은 “확진자는 급증하고 중국에선 의료진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두려웠다”면서 “전 세계 재난 현장에 많이 갔지만, 그건 상황이 끝난 뒤였고 대구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압박도 컸다. 그때마다 기도에 의지했다”고 전했다.

사투를 벌이는 기독교 의료진을 힘 빠지게 한 건 일부 교회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뉴스였다. 기독교인과 교회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서 원장이 일한 동

산병원은 미국 북장로교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한 의료 기관이다. 의료진 대부분이 기독교인이다.

서 원장도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신앙인들이 본을 보여야 하는데 자신의 믿음만 앞세우는 걸 보고 이기적이란 생각을 했다”며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목상해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텐데 국민과 대립각을 세우 아 쉬웠다”고 털어놨다.

의료선교단체인 한국누가회 소속 김신곤 고려대 내과 교수는 “코로나19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면서 “특히 고령자가 많은 교회에선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고 무증상자인 청년들이 교회에 왔다가 고령의 성도를 감염시킬 수도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출석하는 교회는 오는 10일부터 현장 예배를 드린다. 대신 한 번만 드렸던 주일에배

회차를 늘리기로 했다.

김 교수는 “교회가 워낙 작아 성도 간 거리를 유지할 수 없어 회차를 늘리고 예배 참석도 청년과 고령자로 구분해 드린다”며 “온라인 예배도 병행한다”고 설명했다.

서 원장도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의 전파력은 대단했다. 밤심하는 순간 금방 퍼질 수 있다”면서 “만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감기 기운이 있거나 열이 나면 스스로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배를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를 통해 일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삶이 교회가 되는 걸 많은 사람이 경험했다”면서 “생활 방역을 하며 생활 영성도 경험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발상의 틀 깨 ‘작은 교회들’ ...

### 제1회 개척교회 아이디어 공모전

젊은이들이 클럽을 돌며 밤새 춤을 추는 서울 마포구 홍익대 앞 거리에서도 교회가 개척되고 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존재하거나 카페와 문화 사역을 결합된 형태의 교회 등 이전엔 없던 새로운 개척 사례가 나왔다.

한국교회생태운동(대표 정영택 목사)과 크로스로드(대표 정성진 목사)는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총회장립100주년기념관에서 ‘제1회 개척교회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심사 발표회’를 열었다. 창의적이고 특성 있는 교회 개척을 독려하고 다양한 교회의 생태 숲을 만들어가자는

취지 아래 개척 2년 차 이하의 새로운 교회 사례를 공모했다. 1차 사전심사로 본선 4팀을 선 발했고 이날 2차로 각자 10분간 발표회를 진행해 최우수 1곳을 선정했다. 한국교회사와 함께한 서울 남대문교회 새문안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목회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홍대 앞 ‘움직이는교회’ 김상인 목사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김 목사는 “성전 문밖에 앉아 교회로 들어오지 않는 다음세대를 직접 찾아 나서기 위해 홍대 앞 거리에서 교회를 개척했다”고 말했다. 교회는 사랑을 남

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동시에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거리의 청년들에게 접근했다. 춤을 추며 밤을 새우는 10대들에게 “너희들 뭐가 필요하니” 물었더니 “춤 배고파요”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래서 거리에 천막을 치고 떡국을 나누며 난로를 가져와 몸을 녹이게 했다.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이른바 ‘불금’마다 매주 찾아오길 1년 6개월. 이제는 공간을 빌려 예배를 드리고 집 없는 청년들과 함께 공동 숙소를 운영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김 목사는 “교회 안에는 다음세대가 적지만, 교회 밖에는 10대들이 너무나 많았다”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예수님 사랑으로 동행하는 게 전략이라면 전략이었다”고 말했다.

골목의 주목받지 못하는 작은 교회를 찾아가 목회자를 인터뷰하고 사역을 소개하는 ‘골목교회’는 유튜브 채널로 운영되고 있다. 허유빈 목사를 포함해 3명의 젊은 목회자가 함께하는데 모두 동네 작은 교회 목회자였다. 허 목사는 “출석 성도 150명 미만의 언론에 소개되지 않은 교회를 찾아가 영상으로 인터뷰함으로써 지치고 위축된 목회자를 위로하고 다른 교회들과 연결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성도의 절반이 알코올 중독증 치료를 받는 상가교회, 농아인 성도를 이끄는 농아인 목회자 등을 소개하며 위로와 연결의 사역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동작구 송실대와 중앙대 사이에 있는 ‘더주님의교회’ 신성운 목사는 지난해 9월 개척과

## “결국 터졌다” ... ‘찜방’ 서 확진자 나와

### 남성간 성행위자들 집단 난교 벌이는 곳

국내 최대의 동성애자 전용 사이트에 올라온 글. 블랙수면방은 동성애자들이 익명의 상대와 성행위를 하는 찜방이다.

남성 간 성행위자들이 집단 난교를 벌이는 찜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나왔다.

서울 강남구청은 9일 안내문자를 보내고 4일 0시 30분부터 5일 8시 30분까지 블랙수면방을 방문한 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블랙은 남성 동성애자들이 찾는 서울 강남의 대표성인 찜방으로 익명의 남성과 성행위를 벌이는 공간이다. 주로 현금을 내기 때문에 누가 다녀갔는지 알 수도 없다.

찜방은 보통 3.3㎡(1평) 남짓의 개인 공간과 여러 명이 들어가 관계를 맺는 개방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어두운 방에서 성행위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손 소독제 사용이나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동성 간 성행위자들이 성행위를 즐기는 찜방이 방역 당국의 통제에 벗어나 있는 이유는 이들 업소가 휴게텔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동선을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 점을 잘 알기에 동성 간 성행위를 즐기는 남성 동성애자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이태원 게이클럽’ 보도는 공익위한 것”

### 교회언론회 논평

한국교회언론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태원 클럽이 ‘게이 클럽’이라 보도한 것은 공익적 보도이며 보호받아야 할 언론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교회언론회는 지난 8일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유행) 상황에서 동성애 보호가 더 중요한다’라는 논평을 내고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팬데믹 상태인데, 옹인시 66번 확진자가 다녀간 곳을 ‘게이 클럽’이라고 보도해 아무런(동성애자라는 사실이 타의에 의해 밝혀짐) 당했다며 기자와 언론사에 대한 압력이 들어

국내 최대의 동성애자 사이트에선 이곳을 방문한 동성애자들이 수백명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아이디 i\*\*\*\*는 “코로나 여파라도 밤부터 아침까지 200명은 들락날락했을 것”이라는 글을 올려냈다. 아이디 w\*\*\*\*도 “찜방 특성상 밀접접촉이니... 큰일났다”고 적어냈다.

아이디 m\*\*\*\*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게이 찜방에서 나오면 신천지보다 더 욕먹을 것”이라며 “안 그래도 게이들이 풍요층 소리 듣는데 그런 데 있는 거 밝혀지면 진짜 곤란하지 않을 까?”라는 글을 올렸다.

에이즈에 감염된 남성 동성애자들을 돌본 염안선 수동연세요양병원장은 “동성 간 성행위를 하면 콘돔마라 매독 이질 간염 에이즈 등에 걸릴 가능성이 높고 면역력이 낮아져 코로나19 감염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찜방에선 게이들끼리 신체 접촉이 많고 콘돔, 분비물, 수건 등이 널려있어 위생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코로나19에 무방비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염 원장은 “이들은 신천지처럼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자신의 독특한 성적취향이 외부에 드러날까 봐 방문 사실조차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주된 이유는 동성애자가 차별받고 개인 신상이 알려졌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경우 질병관리본부나 언론은 그 장소와 특정 단체를 자세히 소개해왔다. 국민 건강과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교회언론회는 “이번 보도는 공익적 차원에서 한 것이며 동성애를 포함한 다종이 모이는 클럽에서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방역 당국과 언론기관은)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과 발생 위험성이 높은 곳을 공개함으로써 예방과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 예배당 1m 거리두기...

### 예장통합 17개항 세부 지침 발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는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후 첫 주일을 맞아 ‘예배당 내 사람 간격 1m 이상’ ‘예배당 출입 시간 분산’ ‘성경 찬송가 등 개인물품 사용’ 등을 골자로 한 17개 조항의 세부 지침을 작성해 전국 9000여 교회에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교회 내 방역 관리자 지정,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처 확보, 예배당 예배 외에도 온라인 등 비대면 비접촉 방식의 병행, 예배나 집회 전후 환기와 소독, 출입구 손잡이 등 매일 1회 이상 소독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

앞서 ‘강화된 거리두기’ 시절에도 지속했던 마스크 사용, 발열 체크, 예배당 출입자 명부 비치 등의 조처도 계속 실행하도록 요청했다.

예장통합은 또 “한국교회총연합과 함께 성령강림주일인 5월 31일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해 지키기로 했다”고 안내하며 “등록교인들이 예배당에서 주일예배를 드림으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도록 권장에 따라”고 요청했다.

오는 31일 온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세대통합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린이 학생 청년들의 특송, 교우들이 함께 작성한 공동기도문 등을 순서로 넣을 것을 당부했으며, 혼잡을 피하기 위해 주일예배 횡수를 늘리는 한편 출석이 어려운 성도들을 위한 온라인 예배도 병행해 달라고 전했다.

동시에 생면부지의 카페와 함께 성장해온 이야기를 전했다. 신 목사는 “카페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개척 초기 재정적 부담인 고정 임대료를 아껴 사역인 환에 힘쓰고, 카페는 교회모임으로 운영에 도움을 받으며 상생하는 형태”라고 소개했다. 공유워킹센터를 만들어 문화사역을 교회와 연결하는 형태를 준비하는 박범 목사는 “지역교회의 주일학교를 연합해 진행하는 형태로 플랫폼이 되는 교회를 꿈꾸고 있다”고 발표했다.

심사위원들은 목회자로서 ‘개척’이란 말에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입을 모았다. 김운성 영락교회 목사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교회의 지평을 넓히는 모습에서 한국교회 희망을 발견한다”고 했다.

# “우울증과 영적 치유” (16)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 6. 영적 자유

어느 날 내가 교도소에 있을 때 산만해 보이는 한 수감자가 나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뒤에서 음성이 들리고,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고 말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앓아왔다. 그녀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약물치료를 받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자유임을 알았다. 나는 성경에 나타난 일들이 그녀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해주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쫓아내 자신에게서 떠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다. 그녀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주었지만 그녀 자신이 예수님을 영적 혼란과 괴롭힘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아직 그것을 믿지 않고 있었다. 그녀 자신이 마귀의 공격에 대항할 수

있는 믿음을 성장시킬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영적세계와 마귀의 존재들이 그녀를 공격하고 괴롭힐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약 석 달 후, 나는 그녀를 생활관에서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밝게 웃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영적치유를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주었다. 다른 수감자가 그녀를 예배에 초대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도 내가 제안한 것을 다시 제시했다고 한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권능을 선언하고, 사탄에게 물러나라고 명령했는데 더 이상 이상한 음성이 들리지 않았고 검은 그림자가 사라졌다고 했다. 그 후부터 그녀는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했고, 매일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유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고 말했다. 예수님께 의지함으로써 악령들에게 저항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을 때, 영적 공격을 이길 수 없다. 의사가 그녀의 치유됨을 보고 놀랐다고 한다. 더 이상 항우울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되고 전에 갖지 못했던 기쁨을 찾았다고 한다.

나는 모든 정신적 질병을 영적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뇌 손상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이들은 의학적 치료를 필요로 한다. 많은 경우 건강을 회복하도록 의사가 도울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의사의 도움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사례가 많다.

어떤 이는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나서 좋아지기도 한다. 의사가 육신적, 감정적, 그리고 정신적 문제를 안고 있는

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눅9:1-2).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눅10:19).

## 7. 상심과 희망

한 여인은 깊은 우울증과 심리적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다. 그 증상은 그녀가 군대에 있을 때 일어났고 아픔을 마약으로 잊으려하다 교도소까지 가게 되었다.

아버지를 잃기 전 그녀는 너무도 깊은 감정적 정신적이고 통가운데 있으면서 깊은 슬픔

님께서 그녀 아버지의 죽음보다 더 큰 그림을 그녀에게 보여주시려 한다는 사실을 그때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의 큰 그림, 하나님의 계획을 주시며 슬픔에 찬 많은 사람들을 도우신다. 하나님이 그녀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려 하신다는 것을 믿었고, 그녀에게 아버지를 잃은 아픔에서 야기된 슬픔, 분노, 용서, 자책감 등을 극복해야 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아버지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에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의 얼굴은 환했고 미소로 빛났다. 나는 하나님이 그녀를 치유하기 시작하셨음을 알 수 있었다.

“목사님이 말씀해주신 이사

는 그렇게 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아버지를 잃은 것으로 슬퍼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그녀가 방향을 찾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서 매우 기뻐했다. 그녀가 아직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최고의 성인들”이라는 아담스카운티 교도소 수감자들이 쓴 책을 편집했고 기쁨을 찾았다. 상실감으로 우울함을 느끼고 힘이 없는 이들은 이사야서를 읽고 매일매일 묵상하라. 그 여인은 그녀 아버지가 걷고 뛰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므로써 치유를 얻게 되었다. 그녀가 위로를 얻은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의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탐욕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사40:28-31). 비록 어떤 이는 이 땅에서 육신의 힘을 다시 얻지 못하더라도, 천국에서는 온전하게 된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

yonghui.mcdonald@gmail.com

## 뇌손상 등 정신적 질병, 의학적 치료 받아야 영적 치유 필요한 경우엔 성경 말씀 읽도록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영적 치유가 필요하기도 한다. 이번이 그런 경우였다. 이 여인은 내가 강의하고 있는 “용서하기” 수업에 참석했다. 그녀가 매일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쫓고,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것을 보는 것은 나에게 큰 희망과 기쁨을 주었다. 이 사례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고치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더 큰 확신을 심어주었다.

“예수께서 열 두 제자를 불

에 빠져 있었다. 아버지와 너무도 가까웠던 그녀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다리를 절단하고 심히 고통을 겪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오랜 시간을 울면서 보냈다. 그녀는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었고, 어느 시점에서는 자살충동과 고통으로 잠겨 있기도 했다.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성경의 어느 구절에 주안에서 뛰고 걷고 또 힘을 얻는다는 말씀이 있는지 몰랐다. 이사야서 40장에 그 말씀이 있다고 말해주었다. 성경

야 40장을 읽었어. 그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은 내 마음을 위로해주셨어요. 나의 아버지는 살아서는 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천국에서 걷고, 뛰고 계세요. 이곳에서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고 천국에서 행복하게 계시다는 사실에 위안을 느껴요. 목사님 제안대로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아버지를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이제 나는 마음에 평안을 느껴요.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 내 어린 아들을 잘 돌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나

## 특/별/기/고

# “선교사 관점에서 본 코로나바이러스19 비상사태가 가져온 세계선교현장 변화와 한국인 선교사의 삶과 사역 방향 “ (중)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로 휴교조치하고 각 회사들도 재택근무를 하려고 하네요. 우리는 발리 선교센터 건축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역지 법인이사회를 스마랑에서 하는데 운항이 취소되어서 자카르타를 경유하여 가야하는 어려움을 겪네요(양춘석).  
-태국은 불교의 배경을 가진 나라인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오늘부터 4월 말까지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통행금지로 인해 이동의 자유도 제한됩니다(김정웅).  
-상파울루주에서 미사, 예배 또는 종교행위를 금지하여 신도들의 인원수의 상관없이 위반행위는 10,000레알의 벌금이 따릅니다. 법령 미준수시 법원에 통보합니다(브라질, 정종태).  
-이스라엘은 특정국가의 외

국인 입국을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돌아온 모든 이스라엘인은 14일간 자가격리시키고 3월 6일부터 베를레헴과 이스라엘 국경도 폐쇄된 상태입니다(정예스터).  
-현재 확진자 480명 국경폐쇄 약 5월말까지 예정 식량 5월말까지 정도 준비할 것(페루, 호도병).  
-볼리비아 주재 미국대사관에서는 자국민 귀국을 위해 볼

리비아에서 미국 마이애미까지 임시항공편을 운항할 계획이며 우리나라 국민도 일부탑승 가능하다고 합니다(볼리비아, 최영란).  
세계 각처의 선교지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변화되고 있다. 멕시코, 알제니, 칠레, 파나마, 과테말라, 브라질, 볼리비아, 파라과이, 페루 등 중남미는 나름대로 열심히 방역조치

를 잘하고 있으며 이곳에 파송되어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은 어려운 현실 속에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극심한 사회적, 빈부차가 있는 상황이라 전무후무한 사회적 어려움 가운데 우리 한인 선교사들이 어떻게 이 현상 가운데 하나님과 진정한 화해, 그리고 치유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겠

는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 4.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적 변화

Covid-19는 정치적, 사회적 변화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목적인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의 식과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아프리카 오지의 나라 차드의 문인 무스타파 달렘은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것에 의해 흔들리는 인류 그리고 무너지는 사회를 이렇게 표현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라 불리우는 작은 미생물이 지구를 뒤집고 있다. 서방의 강국들이 시리아, 리비아, 예멘에서 얻어 내지 못한 휴전과 전부를 중지하게 하였으며 알제리군대가 못 막아내던 리프지역 시위에 종지부를 찍게 만들었고,

(14면으로 계속)



강성철 선교사(브라질)

웨딩, 장례식 전문  
사랑을 전합니다

# Florist Nabi

나비꽃집

대표: 장효종(뉴욕 크리스천 코럴)

718-286-9920  
email: floristnabi@gmail.com  
44-29 Douglaston Parkway Douglaston, NY 11363



# 영어로 보는 성경 (64)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 1 John 1:8-10

8) If we claim to be without sin, we deceive ourselves and the truth is not in us. 9)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just and will forgive us our sins and purify us from all unrighteousness. 10) If we claim we have not sinned, we make him out to be a liar and his word is not in us.

(NIV 2011)

### WORD & IDIOM

\* claim: 주장하다 \* deceive: 속이다, 기만하다 \* confess: 고백하다 \* purify: 더러움을 제거하다 \* unrighteousness: 불의 \* make out: 입증(주장)하다, ~인 듯이 말하다

### GRAMMAR

8) If we claim to be without sin,  
만약(~하면) 우리(가) 주장하다 죄 밖에 있다는 것(을)

we deceive ourselves and the truth is not in us.

우리(가) 속이다 우리 자신(을) 그리고 진리(가) 우리 안에 없다. => 만약 우리가 죄

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면, 우리는 우리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이다.

9) If we confess our sins,  
만약(~하면) 우리가 고백하다 우리의 죄를

he is faithful and just and (1) will forgive us our sins

그는 신실하고 (정)의롭다 그래서 (-할) 것이다 용서해주다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and (2) purify us from all unrighteousness.

그리고(또한) 깨끗하게 하다 우리를 모든 불의로부터 => 만약 우리가 우리

의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신실하고 (정)의로우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며 (또한) 우리를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 <he is faithful and just>는 <주어(명사)+동사(be)+보어(형용사)>로 이루어진 2형식의 문장이다. 이 경우 <be>동사는 <-이다> <-가 있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형용사가 보어로 쓰였을 경우에는 <be+형용사>를 하나의 단어로 보고 <형용사하다>로 번역을 해야 한다. 따라서 이 문장의 경우 <그는 신실하고 (정)의롭다>가 될 것이다. \* (1)에는 주어 <he>가 생략되었고 (2)에는 <he>와 <will>이 생략되었다. \* 문장을 연결하고 있는 접속사 <and>는 일반적으로 <그리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나 해석은 문맥에 따라 우리말 낱말을 살려 적절하게 하면 된다.

\* <he (will) forgive us our sins>는 <주어+동사+간접목적어+직접목적어>로 이루어진 4형식의 문장이다. 4형식의 문장에 사용되는 동사를 <수여동사, Dative Verb>라고 하며 대표적인 동사는 <give>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4형식 문장에 쓰인 동사(tell, show, teach, send, make, get, bring, lend 등)를 해석할 경우 <주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10) If we claim (3) we have not sinned.

만약 우리가 (~을) 주장을 하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

we make him out to be a liar

우리가 그를 입증한다 거짓말쟁이

and his word is not in us.

그리고 그의 말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 만약 우리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면, 우리는 그분이 거짓말쟁이임을 입증하는 것이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것이다.

\* (3)에 명사절(we have not sinned)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생략되었다. \* <have not sinned>는 현재완료의 부정형이다. <we make him out to be a liar>는 5형식의 문장으로 to부정사구(Infinitive phrase)인 <to be a liar>가 <him>을 수식하는 목적격 보어로 쓰였다.

### STUDY & THOUGH

■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를 범하였고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아담의 타락이후 모든 인간의 행동이 죄의 본성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고, 스스로 거짓말쟁이임을 인정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빛이요 진리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큰 죄를 짓는 것이며, 자신의 본질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이자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행위로서 자신 안에 진리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일 뿐이다.

■ We must rely on the blood of Jesus that cleanses us and fights against sin.

livingstonech@gmail.com

#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 월 그 왕이 가지신 풍성한 긍휼(막8:1-3)찬178장

일곱 개 떡과 두어 마리 생선으로 큰 무리를 먹이신 그 왕은 긍휼이 참 많으십니다. 능력의 근원인 그 왕의 긍휼은 본문에 어떻게 나오니까? 첫째, 그는 그들의 곤비함을 아셨습니다(2). 사흘간 말씀 듣느라 피곤하고 지친 그들의 형편을 잘 아시고 문제를 친히 해결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으로 문제해결하신 왕은 창조주이시며 섭리주이십니다. 둘째, 그들의 궁핍함을 아셨습니다(3). 그들의 굶주리를 잘 아

실뿐 아니라 말씀에 굶주린 그들의 영적궁핍을 잘 아시는 그 왕은 그의 긍휼로서 문제를 해결 하셨습니다. 인생은 오직 전능자의 그늘아래서 참 평안을 가집니다. 셋째, 그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자상하게 챙기셨습니다(3). 모두 그의 긍휼의 표현입니다. 그 사랑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그의 긍휼을 따라 이 시대를 이기며 연합한 이웃을 싸매어야합니다.

## 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막8:4-10)찬301장

인생의 기본문제인 배고픔을 주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첫째, 그의 사랑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3). 불쌍히 여기신 그 큰 사랑이 우리 구원의 근원입니다(엡2:4). 모든 문제의 치료는 그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둘째, 제자들을 참여시키셨습니다(6-7). 주님이 친히 쉬운 방법으로 해결하심에도 의도적으로 제자들의 작은 협력을 구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로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시켜 영적유익을 얻게 하

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참은 도움이 아니고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려는 주님의 배려입니다. 그에게 쓰임 받은 것처럼 영광된 일이 없습니다. 셋째, 작은 것을 축복하셨습니다(7). 많은 사람에게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주님은 그것을 축복하심으로 큰일을 이루셨습니다. 나의 보잘 것 없는 것이라도 주께 드릴 때 주님은 복을 주셔서 크게 쓰실 수 있습니다.

## 수 주님의 깊은 탄식(막8:11-13)찬88장

이 세대를 향하여 주님은 왜 깊이 탄식하셨습니까? 첫째, 주님을 환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11). 주님을 시험해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마음은 불신앙으로 짓눌려 교만하여 하나님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주를 섬기는 그들은 주님을 환영할 수 없습니다. 둘째, 그들이 표적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 탐욕은 표적주의로 나타났습니다. 증거인 표적을 구함은 신앙의 확증을 위해 필요하나 기이한 일만을

구하는 것은 육적 탐욕에서 나온 것이기에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는 표적과 지혜보다 그리스도를 구해야합니다. 셋째, 그들은 그 왕만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불신앙적 열매는 계시를 받지 못해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탄식소리를 듣고 성령의 조명으로 충만한 자로 살아갑시다.

## 목 주의애야 할 세 가지(막8:14-20)찬363장

주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이 주의할 것 세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야 합니다(15). 외식을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속과 겉이 다른 불신실은 모든 죄악의 온상입니다. 경건모양을 가장한 거짓이 활동할 때 생명의 역사가 기대될 수 없습니다. 외식주의를 이기는 길은 주의 말씀에 착념해 그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둘째, 헤롯의 누룩을 경계해야 합니다(15). 탐욕을 경계하라는 뜻입

니다. 탐욕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가져옴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성령의 거룩한 소욕을 항상 반대하는 육체의 소욕인 탐욕은 거룩한 생활을 무너뜨립니다. 셋째, 육의 누룩을 살펴야 합니다(17, 21). 말씀을 깨닫지 못한 마음은 육체의 소욕으로 기울어집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복종함으로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한 신자로 살아갑시다.

## 금 주님이 치료하시는 방법(막8:22-26)찬488장

그 왕은 어떻게 자기 백성을 치료하셨습니까? 첫째, 시험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23). 맹인을 밖으로 데려가시는 것이나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는 행위는 믿음을 포기할 동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시험과 정을 통해 믿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둘째, 치료의 단계를 두심으로 그를 연단하셨습니다(24-25). 두 번씩이나 안수를 통한 결과를 확 인하게 하심으로 주님에 대한 순종과 진실된

믿음을 훈련하셨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모두 밝히 보이게 되기까지 성령은 주님을 더욱 더 집중해 그의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믿음은 연단을 통해 순수해지고 견고해지고 살아 역사합니다. 셋째, 겸손함을 가르치셨습니다(26). 교만함을 경계하시고 돌아가 가정과 함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복음은 가정을 중심해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행16:31).

## 토 베드로의 고백(막8:27-32)찬408장

그 왕은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하러 오셨음을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구원과 섬김의 기초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그는 누구십니까? 사람들의 세례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 하나라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삼중직, 선지자 대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고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오실 메시아 곧 구세주이십니다. 둘째, 그는 무엇하러 오셨나

요?(31-33)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러 오셨습니다. 셋째, 그 길을 막는 사람은 망합니다. 베드로의 인간적 생각으로 고난을 항변하자 그는 사탄으로 지목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영광을 받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영광의 길이 우리가 가야할 길입니다. 좁은 길을 가기를 기뻐합니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합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_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윌밍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2009

# 포스트 코로나 물리적 모임보다 '함께 참석하는 예배' 로 인식!

## 리더십저널, 예일신대원 테레사 베르거 예배학 교수의 디지털사역 5가지 특징 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가 펜데믹 상태가 되면서 온라인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가속화 됐다. 회사 업무 회의, 학교수업, 인간관계도 모두 온라인 동영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를 확장해 텡서비스 '줌(zoom)'이 이끈다는 뉴스가 나올 정도로 줌(Zoom)은 더 이상 하나의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를 "주머세대"(Zoomer, 줌을 쓰는 세대)라고 부른다. 이런 상황에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예배, 소그룹 사역에 있어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배당(오프라인)에 가지 못하고, 목회자와 성도가 직접 대면하지 못한 채 가정(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으로 모이고 있다. 예일대 신학대학원 예배학 교수인 테레사 베르거(Teresa Berger)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사태를 마치 예견한 것처럼 적절한 때에 "예배, 디지털 세상을 만나다(@ worship liturgical practices in digital worlds)"는 책을 내놓았다. 테레사 박사는 디지털 세상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결합돼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 대해서 디지털 사역에 대한 5가지 특징을 설명해준다.

는 멀티미디어적인 요소들이 즉각적이며 쌍방향적으로 깊이 몰입하게 하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5. 휴대와 이동 가능, 접근이 열려 있는 예배

디지털로 매개되는 사역들의 마지막 특징은 넓어지고 광범위해진 "열린 접근"이다. 스마트폰 출연 이후 예배와 기도, 찬송은 새롭고 분명한 방식으로 휴대와 이동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디지털 세계들 안에서 휴대 가능하고 이동 가능한 예배, 전(全) 지구적인 기도와 찬송들이 전(全) 세계적으로 번성해 펼쳐져 나가게 됐다.

디지털로 매개되는 사역들의 다섯 가지 핵심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온라인 공간이 교회 사역을 위해 유례없이 적절한 자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온라인 공간이 기도와 예배, 소그룹 사역을 위한 유례없이 부적절한 장소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의 디지털 시대에서 오프라인 예배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화상 사이를 움직여 다니시는 하나님을 찾는 길을 열어주시지 모르기 때문에 깊은 고민과 성찰에서 나온 테레사 박사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 1. 사역의 레퍼토리 확장

첫 번째로 드러나는 특징은 예배, 소그룹 사역의 레퍼토리가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여러 가지 다양한 장비에서 응용 프로그램 화면과 웹 내용을 표시하는 기술과 같은 기술 혁신 때문에 엄청난 거리를 가로질러 즉각적인 연결을 가능하게 해줬기 때문이다.

특히 '증강현실(AR)'을 통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통합'됨으로써, 사역의 '레퍼토리'가 지금보다 더 방대하게 확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건의 훈련인 기도생활을 할 때 그리 멀리 않은 미래에 오프라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던 경험과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인물의 이미

지들을 혼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포켓몬고와 같은 AR게임이 디지털로 매개되는 작은 포켓몬 괴물을 찾아 동네를 헤매게 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방식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디지털시대 속에서 만나게 되는 예배의 강화된 레퍼토리 앞에서 향수병에 빠지기보다는 예배 자체의 매우 오래된 선택의 논리를 받아들여 이 논리를 디지털 문화와의 대화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더욱 유의할 것이다.

### 2. 연속성과 혁신

디지털로 매개되는 사역들은 지나간 이전 것들과 근본적인 단절보다는 항상 변화하는 문화적 컨텍스트 안에서 연속선상에 있

다고 봐야 한다. 중요하게는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이라고 통상 간주하는 다매체성(multi-mediality), 쌍방향성(interactivity), 텍스트 콜라보(textual collaboration) 등은 디지털 이전 시대 미디어를 형성할 때도 이미 존재했던 것들이다.

디지털 미디어가 종교적 행위를 단순히 변형시키는 것은 아니라하더라도 온라인 예배는 오프라인 예배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들을 포함해 더욱 광범위한 문화적 추세를 비추고 있으며 온라인 사역은 예배생활의 일부에서 분명 변화시키고 있다.

바로 집 밖으로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예배를 드리고, 줌(Zoom)을 이용해 소그룹의 나눔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요소가 나타난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와 그 이전 예배 사이의 차이점을 과도하게 강조하지 말아야 한다.

### 3. 지역과 상관없는 거룩한 공간과 멀티 사이트

디지털로 매개되는 사역들과 관련된 세 번째의 핵심 특징에는 공간에 대한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 디지털 시대에는 새로운 공간들이 나타났다. 이 공간은 훨씬 복잡하고 융합적인 것이다. 선택에 따라 가족들을 위한 장소 혹은 작업장, 비형식적인 공적 모임을 위한 제3의 장소, 혹은 새로운 멀티 사이트 현실 등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지역과 상관없는 거룩한

장소들의 출현과 오프라인 예배당으로부터 예배의 떠남은 직접 함께 참석하는 것보다 예배와 동시성이 우위를 점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디지털로 매개되는 예배에서는 "물리적으로 같은 장소에 있는 것"보다, "함께 참석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결정적인 특징이 되어가고 있다.

### 4. 단선적(linear) 예배를 넘어서

네 번째로 "단선적(linear)" 사역들로부터 보다 "리조매틱"(rhizomatic: 마인드맵처럼 뿌리를 뻗어나가는 현상)하고, 초텍스트적인 경험으로 계속 변화할 것이다. 새로운 텍스트, 이미지, 소리, 비디오, 혹은 애니메이션 등을 통해 스크린에 나타나

## 두려움 바이러스, 사랑 전염병으로 이긴다!

(3면에서 계속)  
노인과 아동 모임에서는 더 많이 감소했다.

그렇지만 싱가포르 교회의 경험에서 얻는 한 가지 위안은 많은 교인들이 교회와 지역사회에 봉사하려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위기의 상황에서 크리스천은 그 진면목을 드러낸다. "코로나19에 따른 불안감이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호주 퍼스의 Faith Community Church의 베니 호 목사는 말했다. 그는 러브 싱가포르 상임위원이다.

"이번 위기에 우리가 빠르게 대응하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호 목사는 말했다. "긴급한 위험이 닥치면 우선순위가 바뀌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지, 깊은 대화를 나눌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는 그냥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면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올바른 일을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성경의 가치인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인가?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 살고 있는가?"

### 6. 이웃을 사랑하라.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끝까지 섬기고 돌보라.

바이러스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공포에서 비롯되지만 싱가포르의 목회자들은 코로나19 상황이 어둠의 시간 한가운데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 교회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주신 기회에 눈을 떠야 한다.

Cornerstone Community Church의 임립용 행정목사는 "교회에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면서 이번 위기가 지역사회를 돕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달라진 일상에 적응해야 했던 초기단계를 지나면서, 교회들은 지역사회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주목하기 시작했다. 첫 지역사회 감염자가 확인되자 몇 주 만에 공포와 불안이 퍼진 지역 사회에는 실제적인 도움-노인들에게 공중위생 수칙을 교육하

는 것과 같은-과 정서적인 도움이 모두 필요하다.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치고 싶었던 것들 중 하나는 지역사회의 분위기였습니다." 임 목사가 CT에 말했다. "첫 감염이 확인되자, 사람들이 공포에서 나온 행동을 했습니다. 패닉에 빠진 사람들이 사재기를 했습니다. 의료종사자들이 발병환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대중교통에서 쫓겨났습니다.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부정적인 요소들보다 긍정적인 분위기가 더 많이 생성 되도록 우리는 교인들에게 사람들을 돌보고, 친절하게 대하고, 도움을 주라고 격려했습니다."

이 교회 직원과 교인들은 건설현장이 멈추면서 생계위험을 받기 시작한 이주노동자들과, 사람들이 외부활동을 중단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기사들에게 도움을 손을 내밀었다.

싱가포르 곳곳에서 크리스천들은 다음과 같은 사랑과 친절을 베풀기 시작했다:

△12살짜리 아이가 쓴 희망의 노래 △지역사회 환경미화원 축복하기 △이주노동자들에게 마

스크와 비타민 나눠주기 △의료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메시지 남기기 △사람들이 병원을 피하면서 공급이 부족해진 지역 혈액은행에 헌혈하기

바이러스는 빨리 퍼진다고 립은 인정했다. "하지만 친절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람은 누구일까? 바이러스에 직접 감염된 사람일까? 직장이 폐쇄된 사람일까? 정서적으로 지친 사람일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교회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을 많은 사람들이 있다. 싱가포르의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19에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있다.

### 7. 온통 나쁜 소식뿐이지만,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하라.

"인류의 전체 역사에서 발생한 그 어떤 바이러스보다도 독한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죄라는 바이러스가 그것입니다." Covenant Evangelical Free Church의 리더십 멘토인 에드먼드 찬이 말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에 감염

되면 면역력도, 생존자도, 희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류 전체가 감염돼 있습니다. 아무도 이 바이러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언론을 통해 전 세계와 지역별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시시각각 업데이트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상기하게 된다. 또한 이 유한성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생각하게 된다. 메멘토 모리.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코로나19 또는 다른 어떤 것으로 죽음을 맞게 된다.

교회는 현재의 고난 너머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우리는 이 희망을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이것이 교회가 가장 긴급히 해야 할 일이다.

RiverLife Church의 벤 K. C. 리 목사는 "더 깊은 문제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세상에서의 삶과 시간을 역지로 연장하려는 것이 과연 의미 있는 일인가? 물질적 부와 위안이라는 헛된 것에 사로잡혀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거할 방을 마련해두신 예수님의 바람대로 그 방을 우리가 가득 채워야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승리와 소망이 어떤 것인지 사람들이 분명히 볼 수 있도록 해야만 이러한 대화는 가능해진다.

Covenant Evangelical Free Church의 추아 정 카이 목사는 이 공포의 시대가 우리의 신앙을 전할 수 있는 미증유의 기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희망을 모르는 우리의 친구, 이웃, 가족이 있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그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공포와 염려를 드러낼 것입니다." 추 목사는 말했다. "구약의 예언자 다니엘은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단12:3)고 말했습니다. 패닉은 가시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교회의 사랑도 가시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복음의 때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아니라, 사랑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유행병을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 출판에 대한 문의는 히즈핑거 (His Finger)

히즈핑거는 주님의 손가락처럼 기독교 문화와 문학에 쓰임 받고자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출판사 이름입니다.



천성은 있습니다. 천성에 가야 합니다. 누구냐 짧은 길던 이 세상에서 일생이라는 여정을 끝내면 영원한 곳에서 살게 됩니다.

김성국 목사가 방황하는 이 시대에 전하는 하나님의 뜻!



###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에 답을 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천성 가시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대답하셔야 합니다.